

기후위기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김효진



기후위기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연구책임

김효진 한국아동권리학회 학술이사

연구진

송미령 한국아동권리학회 실천이사, 아주대학교 의학과 연구강사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연구 요약	vii
01 연구 개요	1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2_연구 내용 및 방법	5
02 기후위기 대응 아동 참여 사례	10
1_국내외 기후행동 자조 단체 활동	10
2_아동의 정부 활동 참여 사례	13
03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19
1_아동이 인식한 기후위기 및 대응 방식	19
2_부모가 인식한 기후위기 및 대응 방식	37
3_아동과 부모가 인식한 기후위기 및 대응 방식 비교	55
04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행동에 관한 인터뷰 결과	61
1_아동이 인식한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61
2_부모가 인식한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66
3_아동과 부모가 인식한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비교	69
05 결론 및 제언	71
1_기후위기 감수성 향상	71
2_시민과 소통의 장 마련	72

3_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	73
4_서울형 그레타 튜베리 활동 지원	75

참고문헌	77
------	----



표 목차

[표 1-1] 아동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
[표 1-2] 부모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
[표 1-3] 인터뷰 참여 아동 특성	8
[표 1-4] 인터뷰 참여 부모 특성	8
[표 2-1] 청소년기후행동단체의 정책제안	13
[표 2-2] 스코틀랜드 기후시민의회	14
[표 3-1]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19
[표 3-2]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20
[표 3-3]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21
[표 3-4]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	22
[표 3-5]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	23
[표 3-6]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23
[표 3-7]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수준	24
[표 3-8]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부모 세대에 대한 화나는 감정 인지 수준	24
[표 3-9]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수준	25
[표 3-10]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관련 부모 세대에 대한 화나는 감정 인지 수준	25
[표 3-11]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25
[표 3-12]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 관련 부모 세대에 대한 화나는 감정 인지 수준	26
[표 3-13]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26
[표 3-14]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27
[표 3-15]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28

[표 3-16]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인식	28
[표 3-17]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29
[표 3-18]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29
[표 3-19] 기후변화 태도 점수	30
[표 3-20]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31
[표 3-21]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비교	31
[표 3-22]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31
[표 3-23]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32
[표 3-24]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32
[표 3-25] 기후변화 지식 점수	33
[표 3-26]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34
[표 3-27]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비교	34
[표 3-28]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35
[표 3-29]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35
[표 3-30]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36
[표 3-31] 기후위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수준	37
[표 3-32]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수준	38
[표 3-33]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수준	39
[표 3-34] 기후위기 심각성 부모의 인지 수준	40
[표 3-35]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부모의 인지 수준	41
[표 3-36]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41
[표 3-37]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인지 수준	42
[표 3-38]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한 감정 인지 수준	43
[표 3-39]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인지 수준	43
[표 3-40]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관련 미래세대에게 미안한 감정 인지 수준	43
[표 3-41]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44
[표 3-42]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 관련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한 감정 인지 수준	44
[표 3-43]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45

[표 3-44]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45
[표 3-45]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46
[표 3-46]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인식	47
[표 3-47]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47
[표 3-48]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48
[표 3-49]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점수	49
[표 3-50]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49
[표 3-51]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비교	50
[표 3-52]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50
[표 3-53]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51
[표 3-54]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51
[표 3-55]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점수	52
[표 3-56]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53
[표 3-57]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비교	53
[표 3-58]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54
[표 3-59]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54
[표 3-60]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54
[표 3-61]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비교	55
[표 3-62]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지 수준 비교	56
[표 3-63]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수준 비교	56
[표 3-64]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 관련 감정 수준 비교	57
[표 3-65] 아동과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비교	57
[표 3-66] 아동과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향 인식 비교	58
[표 3-67] 아동과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비교	58
[표 3-68] 아동과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비교	59
[표 4-1] 어른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	65
[표 4-2] 아동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	6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단계별 연구 내용과 방법	6
[그림 2-1] 그레타 툰베리 활동	11
[그림 2-2] 청소년기후단체의 기후소송	12
[그림 2-3] 스코틀랜드 기후위기 보고서 표지 및 내용(p.15)	15
[그림 2-4] 스코틀랜드 아동 기후의회 보고서 표지 및 내용	17
[그림 2-5] 아동권리보장원 이벤트 홈페이지	18
[그림 3-1]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20
[그림 3-2] '기후위기'와 연관된 단어	22
[그림 3-3]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	22
[그림 3-4] 기후위기가 미래에 영향 인지 수준	24
[그림 3-5]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27
[그림 3-6]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28
[그림 3-7] 기후변화 태도	30
[그림 3-8] 기후변화 지식	34
[그림 3-9] 기후위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38
[그림 3-10] 부모의 '기후위기'와 연관된 단어	40
[그림 3-11]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	41
[그림 3-12] 기후위기가 미래에 영향 인지 수준	42
[그림 3-13]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45
[그림 3-14] 자녀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인식	47
[그림 3-15]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49
[그림 3-16]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52

○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가 인간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인식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유엔 인권 기구에서도 기후위기의 문제를 인권에 기반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함. 동일한 시각에서 기후위기를 아동 권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함.
- 기후위기의 문제를 아동 권리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무엇보다 아동의 참여권은 더 강조되어야 함.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문제에 성인과 동등하게 아동은 참여할 권리가 있음. 아동들이 제시하는 기후위기 해결책은 성인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동 참여 자체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처하는 중요한 해결 과정이 될 수 있음.
- 기후위기의 문제에서 중요한 주체와 이해당사자는 미래세대인 '아동'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응 정책에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는 배제되었음. 기후위기는 그 어떠한 이슈보다 아동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므로 기후위기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담아내는 연구가 필요함.
-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2003년 출생)'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임.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은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다른 나라에서 제2의 '그레타 툰베리'를 만들었으며 아동이 기후위기의 문제에 연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성인뿐 아니라 아동도 낮은 편이며 한국의(혹은 서울의) '그레타 툰베리'는 찾아보기 힘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의 자조 활동과 참여 활동을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함.
- 본 연구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제2의 그레타 툰베리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임. 연구의 핵심 목적은 기후위기의 이해당사자인 아동의 참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국내외 아동 참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음. 또한 아동과 부모가 인식하는 기후위기와 기후 대응 방식을 분석하여 기후위기 인식 확산을 위한 기존의 성인 중심의 대응 방식과 차별화된 아동 참여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함.

○ 연구 방법 및 내용

• 국내외 기후위기 아동의 참여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기후위기 관련 아동의 활동 참여 사례를 조사함. 국내외 NGO(그레타 툰베리, 청소년 기후연대 등) 등의 연대 활동과 스코틀랜드 아동 기후의회 등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보장원의 온라인 의견 제안 창구와 아동총회를 분석함.

• 설문 조사

- 설문 조사는 기후위기 관심,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기후행동 참여, 기후변화 지식 및 태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함. 설문 대상은 아동과 부모 두 집단으로 아동은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이며 영유아와 초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임. 설문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아동은 총 205명, 부모는 275명이 응답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함.

• 심층 면접

- 아동의 기후위기 인식을 비롯하여 아동의 기후행동 참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노력 등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 위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함. 아동 참여자들은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3명, 부모의 경우 초, 중, 고 자녀를 둔 3명을 집단 인터뷰하였음.

○ 아동의 기후행동 사례

- 스웨덴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 8월 스웨덴 의회 밖에서 ‘Skolstrejk för klimatet’ (기후에 대한 학교 파업) 플래카드를 든 시위 행동을 시발점으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School strike for climate)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 기후를 위한 청년(Youth for Climate), 기후를 위한 청년 파업(Youth Strike 4 Climate)이 조직되어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국제 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이 단체들은 온난화 및 기후변화 완화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동맹휴학과 같은 시위 형태의 기후행동을 주관함. 주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화석 연료 산업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함.
- 우리나라에도 국제 청소년기후행동과 연대한 청소년기후행동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음. 청소년기후행동단체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당연한 일상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촉구하는 단체임.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청소년의 생존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국가

의 의무를 더해달라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함.

- 스코틀랜드는 아이들도 기후위기로 크게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여겨 10개 학교에서 모집한 100여 명의 아이로 구성된 ‘아동 기후의회’를 구성함.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00명이 넘는 아동 의회 의원이 스코틀랜드 기후 회의에 참여함. 스코틀랜드 아동의회는 “IT’S UP TO YOU, ME AND ALL OF US(그것은 당신과 나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고서를 스코틀랜드 성인 기후의회와 함께 스코틀랜드 정부에 공식 제출함. 제안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 서식지 개발 금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거나 대여해주는 정책, 어린이에게 친환경 식단 교육 제공 등이 담겼음.

○ 기후위기와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

-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심각성,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예’라고 응답한 비율%)

구분			아동	성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기후위기에 들어 본 적 있다.		92.7%	96.7%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다.		66.8%	93.8%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음	18.0%	18.7%
		잘 알고 있음	58.5%	71.3%
		잘 알지 못함	21.0%	10.2%
		전혀 모름	2.4%	0.7%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지	기후위기 교육받은 적이 있다.		68.3%	37.8%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낀다.		95.6%	97.8%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걱정된다.		96.6%	98.5%
기후위기에 대한 미래 영향 인지	기후가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한다.		88.3%	98.9%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화나는 감정/미안한 감정을 느끼나요?		5.21% (화나는 감정)	8.08% (미안한 감정)
	부모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 있다.		47.8%	70.2%

-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및 지지

(‘예’라고 응답한 비율%)

구분		아동	성인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그레타 툰베리를 안다.	26.3%	45.1%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다.	42.0%	48.0%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한다.	70.2%	86.9%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지지)할 의향이 있다.	77.6%	91.3%

-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현상, 원인, 영향, 대응)과 태도(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

(평균/표준편차)

구분		아동 (1~5점)	성인 (1~5점)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기후변화 현상	4.02±0.70	4.13±0.51
	기후변화 원인	4.30±0.67	4.40±0.50
	기후변화 영향	4.43±0.65	4.60±0.47
	기후변화 대응	4.54±0.60	4.66±0.42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감수성	3.65±0.77	4.05±0.57
	기후변화 대응 의지	4.11±0.67	4.26±0.47
	기후변화 대응 실천	4.00±0.67	4.02±0.55

○ 기후위기와 기후행동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

-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 인식, 감정, 책임, 기후행동에 참여 등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아동	성인
기후위기 인식	문제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딱히 관심 있진 않아요	예전과 기후가 달라진 것은 알아요
기후위기 지식	배운 적은 있어서 알고는 있어요	
기후위기에 대한 감정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아무 감정 없어요.	두렵긴 해요
기후위기 책임	나쁜 인간. 모두의 잘못이에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에요
기후행동 참여	· 아동의 목소리가 호소력 있어요 ·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동의 목소리가 파급력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의 참여는 망설여져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막연하지만 사소한 노력부터 할래요	개인보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요.

○ 결론 및 제언

- 기후위기 감수성 향상
 - 기후위기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기후위기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들과 부모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관심은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지식수준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의 기후 감수성을 향상을 위하여 아동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단편적 지식이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시민과 소통의 장 마련
 - 현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의 참여가 제외되어 있음. 아동의 참여는 성인의 참여와 별도로 다루어질 수 없으므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는 더욱 기대할 수 없음.
 - 스코틀랜드는 기후시민의회를 조직하여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시민의회를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줄 수 있음.
 - 시민을 더는 캠페인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계획 수립부터 대안 제시 단계까지 정부/서울시(의회)와 시민이 쌍방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함.
- 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
 - 아동은 단순히 수동적이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권리 주체자’임. 세계 곳곳에서 아동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성인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우리나라 아동들이 기후행동에도 무관심한 이유는 기후위기 감수성이 낮고 입시경쟁 등의 부담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음. 또한 우리나라 아동들은 자신의 삶과 혹은 미래와 연관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자주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금이라도 아동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참여 과정을 통해 능동적 시민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서울형 그레타 튼베리 활동 지원
 - 서울수도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상시적 창구를 마련해야 함. 특히 아동의 참여는 중앙정부 단위에서보다는 비교적 지자체 단위로 실행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서울형 아동 참여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아동의 기후행동 지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위기 의회를 조직하도록 지원해야 함.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의 산하 특별 회의체처럼 운영하는 것도 하

나의 방안임. 특별 회의제 운영에 있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과정부터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퍼실리테이터 양성이 먼저 필요함. 또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문적 회의제가 운영되면 그 안에서 아동 스스로가 기후위기의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사 혹은 연구도 지원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아동의 참여는 유엔총회와 같은 국제회의에서 보여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과 자신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 '아동-청소년의 기후의회'와 같은 기구의 상시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구가 함께 운영방안을 계획해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의 확보는 필수적임.



01. 연구 개요

1_연구 배경 및 목적

1) 아동 권리와 기후위기

기후위기¹⁾가 인간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인식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의 국제적 트렌드라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소송²⁾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의 침해라고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엔 인권기구에서도 기후위기의 문제를 인권을 기반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이행 감시를 위한 독립기구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권리규약의 제6조(생명권)에 관한 일반 지침서를 새롭게 발간하였다(Human Rights Committee, 2018). 지침에 따르면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오염, 지속 불가능한 개발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권(right to life)에 심각한 위협이며, 정부는 공적·사적 행위자가 야기하는 피해, 환경오염 및 기후 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명권, 특히 존엄하게 살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2019년 4월 8일 제74차 UN 총회에서 발표된 ‘환경과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특별보고서³⁾’에 따르

1) 기후위기와 유사한 용어로는 기후변화와 기후 문제 등이 있다. ‘세계가 직면한 기후 문제를 지칭하는 용어가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서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변화하고 있다. 2019년 5월,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트위터(Twitter)를 통해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에 ‘기후 파괴(climate breakdown)’, ‘기후위기’,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 등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Thunberg, 2019; 일연수, 이진균, 이기영, 2021 재인용).

2) 기후변화 소송은 이제 세계적 트렌드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37개 국가에서 1,500여 개가 넘는 기후소송이 제기되었다(Setzer J. & Byrnes R., 2020; 박시원, 2021 재인용).

3) David Boyd, “Safe Climate: 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면 기후위기는 마실 수 있는 물, 음식, 위생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의 환경권과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기업들의 구체적인 의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후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권적 접근을 취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효과적인 감축정책, 취약계층을 위한 적응정책,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정부도 기업의 준수 여부를 계속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박시원, 2021).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시각에서 기후위기를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 관점에서뿐 아니라 아동이 가지는 고유의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더 절실하기도 하다. 아동은 기후위기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발달단계 적합한 세심한 고려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간된 유니세프 보고서(UNICEF, 2021)에서도 기후변화로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의 어린이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삶의 질과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변화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 권리”라는 주제로 2022년 제26차 일반논평(General Comment no.26)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논평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196개국 정부에게 권위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는 세계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권리옹호자들이 정부 및 기타 관련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활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들의 요구에 응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74/161 (2019).

2) 아동의 참여권과 기후위기

과거 아동은 연약한 존재로 성인의 도움을 받는 존재라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경험하고, 그것을 삶에 반영하며, 그것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라는 관점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동에 대해 보는 시각 즉 관점을 변화시킨 것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권리협약의 가장 큰 기여는 아동을 보는 관점의 변화이며 아동 권리 전문가들은 이를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 평가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 네 가지 권리는 동등하게 아동의 삶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아동을 참여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통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왔고, 그로 인해 아동의 참여권보다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을 더 강조해 왔으며 이행 수준도 참여권이 가장 낮았다(김진숙, 2017). 현실에서 아동의 참여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자신의 일상과 가족 등 개인적 영역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에서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모든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 참여권과 관련한 핵심 조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아동 권리 실현의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 사법 및 행정과정에서 아동이 주체여야 함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의 문제를 아동 권리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참여권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문제에 아동은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아동들이 제시하고 필요로 하는 기후위기의 해결책과 변화가 성인의 시각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동의 참여 자체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처하는 중요한 해결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해당사자인 아동이 배제된 기후위기 대응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기후변화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생명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시급하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기후위기는 현재 어른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미래 아동 세대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현재세대가 가해자라면 미래세대인 아동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의 문제에서 중요한 주체와 이해당사자는 미래세대인 ‘아동’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응 정책에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결의’를 채택하였지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그 어떠한 이슈보다 아동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참여 과정에 아동 간의 연대 그리고 성인과의 연대 및 지지가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중요한 문제이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트렌드라는 점에서 이를 간과할 수 없다. 더군다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는 아동의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아동을 배제하고는 할 수 없는 주제라는 점에서 아동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4) 우리나라에도 ‘그레타 효과’가 통할까?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2003년 출생)’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로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2018년 8월 학교를 빠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와 2019년 9월 초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의 연설 “어른들은 나의 아동기를 훔쳐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You’ve stolen my childhood. How dare you?)”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아동의 미래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유명 사례이다.

실제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이 기후변화 관련한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툰베리로 인해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평가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레타 툰베리의 이러한 활동은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다른 나라에서 제2의 ‘그레타 툰베리’를 만들었으며 아동이 기후위기의 문

제에 연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성인뿐 아니라 아동도 낮은 편이며 한국의(혹은 서울의) ‘그레타 툰베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의 자조 활동과 참여 활동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을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아동의 참여와 아동의 자조 활동들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아동·청소년의 기후행동을 지원해 주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울의 제2의 그레타 툰베리 활동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의 구성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한 아동의 인식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 자조 활동과 참여 활동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아동 참여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국내외 이슈 및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참여 사례를 조사하였다. 관련 단체 현황을 조사하고, 기후위기 아동의회 현황과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둘째, 기후위기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해 아동과 부모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지식, 태도, 행동 등에 대해 아동과 부모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인식 조사를 토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아동의 대응 방안 지원과 기후행동 등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아동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 및 사례 조사, 설문 조사, 심층 면접으로 다음 [그림 1-1]과 같다.

단계	내용	방법
- 착수 - 연구 내용 구체화	- 연구 추진 계획 수립 - 연구 내용 구성 - 관련 문헌고찰 - 관련 사례 조사	-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례 조사 및 분석
↓		
- 설문 조사 - FGI - 결과 분석	- 설문 조사지 및 FGI 질문 내용 구성 - 설문 조사 실시 및 자료 취합	- 설문 조사 분석 - FGI 조사/분석
↓		
- 정책제안	- 서울형 기후위기 대응 방안 - 아동 참여 방안 모색	- 자료 정리 및 시사점 도출

[그림 1-1] 연구단계별 연구 내용과 방법

2) 연구 방법 및 자료 분석

(1) 국내외 사례 조사

국내외 기후위기 시민 및 아동의 참여에 관한 문헌과 인터넷 자료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레타 툰베리 등 국내외 개인 및 NGO 등 연대 활동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외 기후위기 관련 아동의 정부 활동 참여 사례 조사는 스코틀랜드 어린이 기후의회 등 선진 사례를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온라인 플랫폼과 아동총회를 분석하였다.

(2)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기후위기 관심, 심각성 인지, 기후행동, 기후변화 지식, 기후변화 태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후변화 지식과 태도는 박기령과 신동훈(2021)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아동과 부모 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아동 설문은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모 설문은 초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

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안내되었다. 모든 설문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은 2021년 8월 약 3주간 실시되었으며 최종 응답은 아동 총 205명, 부모 275명으로 모든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1-1] 아동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인원	백분율
서울 거주 여부	예	124	60.5
	아니요	81	39.5
성별	남자	73	35.6
	여자	132	64.4
발달단계	초등학생	85	41.5
	중학생	57	27.8
	고등학생	63	30.7

[표 1-2] 부모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인원	백분율
서울 거주 여부	예	152	55.3
	아니요	123	44.7
성별	남자	70	25.5
	여자	205	74.5
연령	20대	1	0.4
	30대	47	17.1
	40대	209	76.0
	50대 이상	18	6.5
막내 자녀 연령	영유아	80	29.1
	초등학교 1~3학년	78	28.4
	초등학교 4~6학년	62	22.5
	중학생	31	11.3
	고등학생	24	8.7

본 연구에서 기후에 대한 아동, 부모의 설문 조사를 통해 취합한 자료는 jamov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t-test, ANOVA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와 심각성 등에 관한 문항에 대한 분석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후변화 지식 및 태도 등에 관한 내용은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chi-squared test 혹은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발달단계별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 방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심층 면접

심층 면접 조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및 참여자의 권리 등에 대해 안내받은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동의하였다.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3명 총 6인으로 각각 집단별로 인터뷰하였으며 부모의 경우 초, 중, 고 자녀를 둔 3명을 집단 인터뷰하였다.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은 연구팀에 의해 전 과정을 녹음 및 전사하여 심층 면접의 맥락을 이해하는 분석 과정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아동의 심층 면접은 비대면인 온라인 화상 인터뷰로 개인 인터뷰의 경우 최소 20분에서 집단별로 최대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부모 인터뷰의 경우 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표 1-3] 인터뷰 참여 아동 특성

구분	성별	연령	비고
아동1	남	초5	
아동2	여	초6	
아동3	남	중1	
아동4	여	고1	학급회장
아동5	여	고1	식물 키우기 동아리 활동
아동6	남	고1	

[표 1-4] 인터뷰 참여 부모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자녀	
부모1	여	48	고1 여/ 초3 남	환경 관련 단체 활동 유
부모2	여	49	초6 여 /초3 남	
부모3	여	43	초3 남	

3) 연구 방법의 한계점

본 연구는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 인식 및 기후 대응을 분석하고자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표본의 규모와 표집 방식의 한계상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설문의 참여는 연구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독려되었으며 심층 면접도 임의로 선정된 대상들의 참여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아

동과 부모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표집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 해석의 편의상 본 연구의 참여자의 응답이 우리나라 전체 아동과 부모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결과 분석에서 우리나라 아동과 부모 혹은 서울시 아동과 부모의 의견으로 분석되어 기술되고 있으므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02. 기후위기 대응 아동 참여 사례

1_국내외 기후행동 자조 단체 활동

1) 국제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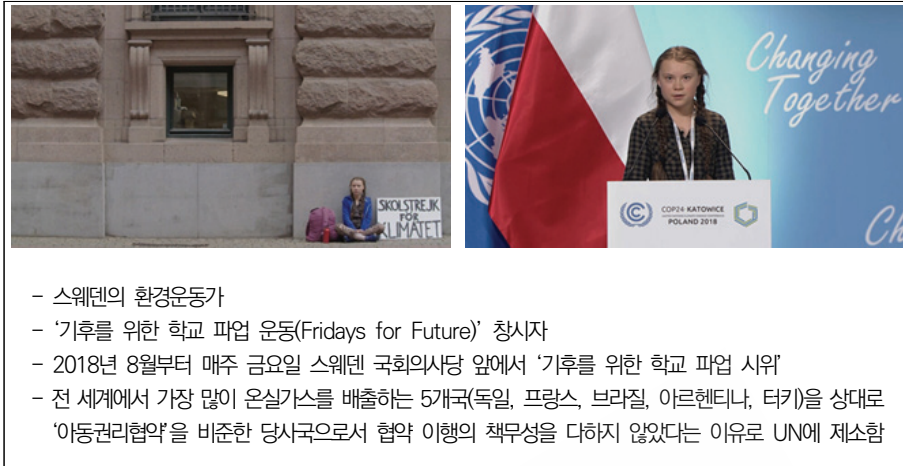
스웨덴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들(School strike for climate, Fridays for Future:FFF, Youth for Climate, Youth Strike 4 Climate)이 조직되었다. 2018년 8월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 의회 밖에서 'Skolstrejk för klimatet(기후에 대한 학교 파업)' 플래카드를 들었던 행동을 시발점으로 기후행동 단체들의 시위는 시작되었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FFF), 기후를 위한 청년(Youth for Climate,), 기후를 위한 청년 파업(Youth Strike 4 Climate)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국제 운동이 되었다. 이 단체들은 온난화 및 기후변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로 동맹휴학과 같은 시위 형태의 행동을 주관한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한다. 대부분 청소년 기후행동 단체들은 SNS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함께 연대하고 있다. 현재 각국의 FFF 트위터(twitter) 채널에 2천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다.

2019년 3월 15일에 열린 글로벌 파업에는 125개국에서 조직된 2,200건의 파업에서 백만 명 넘게 참여하였다. 2019년 5월 24일 2차 글로벌 파업에서 150개국에서 1,600건의 행사가 열렸으며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계속 시위는 확산되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9월 25일을 기후행동의 날로 정하고 세계 청소년들이 모두 연대하여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 11

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⁴⁾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연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2-1] 그레타 툰베리 활동



-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운동(Fridays for Future)' 창시자
- 2018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
-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5개국(독일,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을 상대로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의 책무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UN에 제소함

2) 국내 청소년 기후행동(Youth Strike for Climate Action in Republic Korea)

우리나라에도 국제 청소년기후행동과 연대한 청소년기후행동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단체는 당연한 일상과 안전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촉구하는 단체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18년 8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청소년들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여 2019년 3월 전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 연대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과 함께 결석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후 대응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9년 3, 5, 9, 11월과 2020년 9월 글로벌 기후 운동의 흐름과 연대하여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열었다. 2020년 3월 13일에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 대응이 청소년의 생존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 평등권 등의 기본권

4) COP26: COP은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당사자들 간의 회의를 의미한다.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은 1995년에 열렸으며, 이번이 26번째이다. 세계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10월 31일(현지 시간)부터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COP26에서는 감축·적응·재원·기술·전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논의된다.

을 침해한다'라며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는 요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청구인 19명은 만 13세부터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2020년 3월 24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원고 자격과 소송의 심사 자격을 인정받아 청소년 기후소송이 심판회부가 되어 본격적으로 심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헌법소원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답변 촉구서를 제출하였고, 2020년 10월 말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며칠 뒤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청소년기후행동은 대통령 의견서에서 정부가 기후위기를 축소시키고 최소한의 대응조치만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임을 강조한 반박 의견서를 다시 전달한 상황이다.



[그림 2-2] 청소년기후단체의 기후소송

자료출처: 청소년기후행동단체 홈페이지

주: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녹색법 시행령)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기후재앙을 막을 수 없다"라며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후행동 소속 청소년 19명이 청구인으로 나섰다.

최근에는 청소년기후행동단체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육예산이 석탄에 투자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기후위기 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대선 캠프에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요구하며 대선 캠프에 네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며 정책/공약으로 마련되는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021년 9월 24일은 924 글로벌 파업을 시작으로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하였다.

[표 2-1] 청소년기후행동단체의 정책제안

정책제안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70%로 상향 (2017년 대비)
 정책제안 2. 2030년까지 단계적 탈석탄 추진
 정책제안 3.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50%로 달성 목표 상향
 정책제안 4. 기후 정의에 입각한 전환 정책

2_아동의 정부 활동 참여 사례

1) 스코틀랜드의 아동의회

(1) 성인 시민기후의회와 아동의회의 연대

스코틀랜드는 2019년 개정된 기후변화법에 근거해 16세 이상의 시민 약 10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의회(Scotland's Climate Assembly)를 구성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시민기후의회가 특별한 것은 성인 위주의 기후의회의 구성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의회(children's parliament)와 협력하고 연대하였다는 것이다.

16세 이상 성인 기후의회와 별도로 아동의회에서도 기후위기를 주요 아젠다로 삼아 아동 기후의회(climate assembly)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스코틀랜드의 기후의회 의원들이 16세 이상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후의회 사무국은 스코틀랜드의 아동의회에 스코틀랜드 전역의 어린이들의 참여를 요청하여 함께 연대한 것이다. 성인 시민기후의회는 아동의회를 초청하여 아동의 견해, 경험, 아이디어를 시민의회의 토론과 권고 보고서 작성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기후의회에 어린이들의 참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스코틀랜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스코틀랜드의 법과 동등하게 실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12조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것으로 스코틀랜드 기후의회에서 이러한 아동 참여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은 아동 권리실현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표 2-2] 스코틀랜드 기후시민의회

구분	영국 기후시민의회
조직 배경	2019년 기후변화법 개정안에 따라 구성
목표	기후위기 극복
시민의원 선발	108명(8가지 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 -나이, 성별, 가구 수입 민족성, 지역, 도시/농촌, 장애 여부, 기후변화 관심 정도
예산	소요 예산 전액 정부 지원
활동 기간	5개월(2020년 11월 ~2021년 3월)
결과	2021년 6월 최종 보고서 발간 81개 권고안 제출

자료출처: 한겨레신문(2021.4.5.)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뀌는 시민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9613.html>을 참고로 연구진이 수정하였음.

약 10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스코틀랜드 기후의회는 기후 비상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2021년 6월 23일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하였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법률에 근거해 시민의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시민의회에서 합의된 81개의 권고안에 아동의회의 제안이 함께 담겨 있다. 또한 총 204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에는 아동의회가 작성한 온전한 보고서가 부록으로 담겨 있다. 본 보고서의 의의는 성인의 기후의회와 아동의회가 협업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아동의 보고서를 부록으로 첨부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제안을 보고서에 함께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정책제안 주제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주제별 제안마다 아동의 의견이 모두 함께 첨가되어 있다.



[그림 2-3] 스코틀랜드 기후위기 보고서 표지 및 내용(p.15)

주: 오른쪽은 그림은 보고서 15페이지로 아동의회의 제안(주황색)이 이런 형식으로 보고서 전체에 걸쳐 함께 제시되고 있다.

(2) 아동의회의 주요 활동

스코틀랜드는 아동의 의견 청취 제도가 발달된 아동 권리 선진국이다. 스코틀랜드는 1996년 아동의회를 설립하였는데 아동의회를 통해 스코틀랜드 전역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경험, 생각,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권리 기반의 창의적 실천을 이행하고 있다. 아동의회의 임무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고취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실천을 통해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스코틀랜드는 아이들도 기후위기로 크게 영향을 받는 당사자라고 여겨 10개 학교에서 모집한 100여 명의 아이로 구성된 '아동 기후의회'를 만들었다. 아동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의회에 반영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전역에 걸쳐 도시와 시골 지역사회, 소득과 민족 집단의 혼합, 그리고 성별 균형을 가진 7-14세 어린이 100여 명과 함께 작업했다. 아동의회는 시민의회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활동하였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 까지 100명이 넘는 어린이 의회 의원이 스코틀랜드 기후 회의에 참여한 것이다. 이것은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최초의 기후 시민 총회였다. 스코틀랜드가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된 아동의회의 42개 행동 촉구 방안 보고서는 스코틀랜드 기후의회 전체 보고서 및 권장 사항의 일부로 스코틀랜드 의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스코틀랜드 아동의회의 보고서 제목은 “IT’S UP TO YOU, ME AND ALL OF US(그것은 당신과 나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이다.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아동 의원들은 2020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스스로 기후변화에 대해 학습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3차례의 설문 조사와 투표를 통해 42개 우선순위 제안을 정리했다. 제안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 서식지 개발 금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거나 대여해주는 정책, 어린이에게 친환경 식단 교육 제공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조사 결과 의회에 참가한 어린이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와 아동 인권에 대해 학습할 기회였다고 답했다.

또한 아동의회의 활동으로 스코틀랜드의 전역의 다른 아동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배우고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툴킷(tool kit)도 개발하였다. 툴킷에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안과 스코틀랜드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회가 개발한 툴킷은 2021년 10월 29일 개최된 스코틀랜드의 아동과 청소년이 주최한 전국적 이벤트인 ‘The Moment’ 기간에 지원된다. ‘The Moment’는 아동과 청소년이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⁵⁾에 앞서 선출된 대표자들과 기후 행동 촉구에 대해 토론하고 스코틀랜드 전역의 아동의 행동 촉구를 강조하는 행사이다. 이렇듯 아동의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활동은 단순히 일회성 참여 이벤트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후행동을 독려하고 아동들의 기후행동을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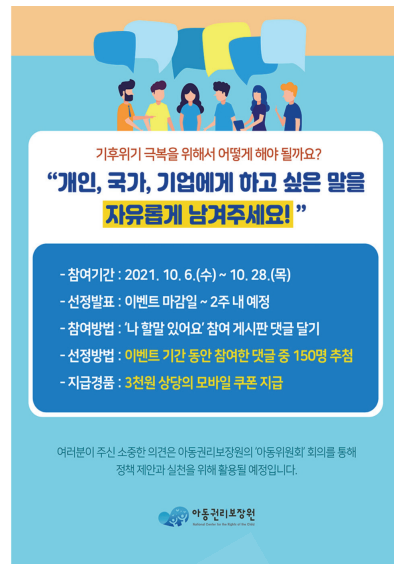
5) COP26: COP은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당사자들 간의 회의를 의미한다.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이번이 26번째이다. 세계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가 31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막을 올린다. COP26에서는 감축·적응·재원·기술이전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논의된다.



[그림 2-4] 스코틀랜드 아동 기후의회 보고서 표지 및 내용

2) 한국의 아동권리보장원 온라인 플랫폼과 아동총회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만을 위한 소통과 참여 플랫폼으로 ‘나 할 말 있어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소리’를 주제로 2021년 10월 이벤트를 열었다. 2021년 10월 말까지 총 70개의 정책 아이디어 댓글이 달려있다. 아동이 남긴 댓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권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책제안과 실천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한국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1.10.31.)

<https://www.ncrc.or.kr/ncrc/bm/bbsManage/attendView.do?mi=1219&bbsSn=21&bbsId=1016&nttType=attend>

[그림 2-5] 아동권리보장원 이벤트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매년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아동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이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아동 참여의 장이다.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10월 23일, 24일, 28일 3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따뜻한 보호 속, 성장하는 아동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뛰노는 우리들’을 주제로 하였다. 매년 총회에서는 아동들의 토의를 통해 정책제안 결의문을 발표하는데 이번 총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제안도 나올지 기대된다.⁶⁾

6) 현재 공식으로 발표된 2021년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은 찾을 수 없음.

03. 기후위기 인식과 대응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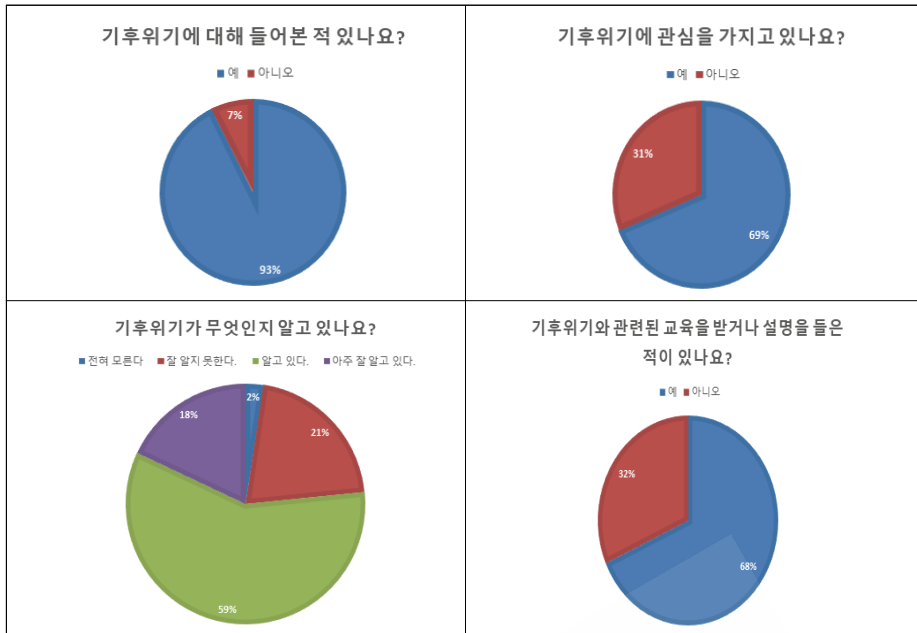
1_아동이 인식한 기후위기 및 대응 방식

1)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아동이 응답한 결과는 [표3-1]과 같다. 응답 아동의 92.7%가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으며,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66.8%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가 58.5%,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0%로 기후위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76.5%이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아동은 68.3%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3-1]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구분		인원	백분율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190	92.7 %
	아니요	15	7.3 %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	141	68.8 %
	아니요	64	31.2 %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른다	5	2.4 %
	잘 알지 못한다	43	21.0 %
	알고 있다	120	58.5 %
	아주 잘 알고 있다	37	18.0 %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예	140	68.3 %
	아니요	65	31.7 %



[그림 3-1]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 3-2]와 같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서울 거주 아동이 비거주 아동에 비해 관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2=4.28$, $p<.05$). 그 외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경험, 기후위기에 관한 인지도, 기후위기 교육 경험 등은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3-2]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117(94.4%)	73(90.1%)	190(92.7%)	1.29
	아니오	7(5.6%)	8(9.9%)	15(7.3%)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	92(74.2%)	49(60.9%)	141(68.8%)	4.28*
	아니오	32(25.8%)	32(39.9%)	64(31.2%)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른다	1(0.8%)	4(4.9%)	5(2.4%)	5.31
	잘 알지 못한다	24(19.4%)	19(23.5%)	43(21.0%)	
	알고 있다	73(58.9%)	47(58.0%)	120(58.5%)	
	아주 잘 알고 있다	26(21.0%)	11(13.6%)	37(18.0%)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예	87(70.2%)	53(65.4%)	140(68.3%)	0.51
	아니오	37(29.8%)	28(34.6%)	65(31.7%)	
		124(100%)	81(100%)	205(100%)	

* $p < .05$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 3-3]과 같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관심도가 높았고($\chi^2=8.79$, $p<.05$), 기후위기에 관한 교육 받은 경험도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9.50$, $p<.01$). 그 외 기후위기에 대한 들어본 경험, 기후위기에 관한 인지도는 초·중·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3]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80 (94.1%)	54 (94.7%)	56 (88.9%)	190 (92.7%)	1.95
	아니요	5 (5.9%)	3 (5.3%)	7 (11.1%)	15 (7.3%)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	68 (80.0%)	36 (63.2%)	37 (58.7%)	141 (68.8%)	8.79*
	아니요	17 (20.0%)	21 (36.8%)	26 (41.3%)	64 (31.2%)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른다	2 (2.4%)	1 (1.8%)	2 (3.2%)	5 (2.4%)	2.77
	잘 알지 못한다	14 (16.5%)	15 (26.3%)	14 (22.2%)	43 (21.0%)	
	알고 있다	51 (60.0%)	32 (56.1%)	37 (58.7%)	120 (58.5%)	
	아주 잘 알고 있다	18 (21.2%)	9 (15.8%)	10 (15.9%)	37 (18.0%)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예	66 (77.6%)	40 (70.2%)	34 (54.0%)	140 (68.3%)	9.50*
	아니요	19 (22.4%)	17 (29.8%)	29 (46.0%)	65 (31.7%)	
		85 (100%)	57 (100%)	63 (100%)	205 (100%)	

** $p < .01$, * $p < .05$

‘기후위기’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은 다음 [그림 3-2]와 같다. 아동들은 ‘온난화’, ‘북극곰’, ‘폭염’, ‘상승’, ‘산불’, ‘해수면’, ‘빙하’, ‘생태계’ 등의 단어를 언급하였다.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은 서울 거주하는 아동이나 그렇지 않은 아동 모두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표 3-5) 참고).

[표 3-5]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119(96.0%)	77(95.1%)	196(95.6%)	0.10
	아니요	5(4.0%)	4(4.9%)	9(4.4%)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나요?	예	121(97.6%)	77(95.1%)	198(96.6%)	0.94
	아니요	3(2.4%)	4(4.9%)	7(3.4%)	
		124(100%)	81(100%)	205(100%)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을 확인한 결과, 다음 [표 3-6]과 같다.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지 수준은 초·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chi^2=10.2$, $p<.01$),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걱정도 초·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21$, $p<.05$).

[표 3-6]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83 (97.6%)	57 (100.0%)	56 (88.9%)	196 (95.6%)	10.2**
	아니요	2 (2.4%)	0 (0.0%)	7 (11.1%)	9 (4.4%)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나요?	예	83 (97.6%)	57 (100.0%)	58 (92.1%)	198 (96.6%)	6.21*
	아니요	2 (2.4%)	0 (0.0%)	5 (7.9%)	7 (3.4%)	
		85 (100%)	57 (100%)	63 (100%)	205 (100%)	

** $p < .01$, * $p < .05$

3)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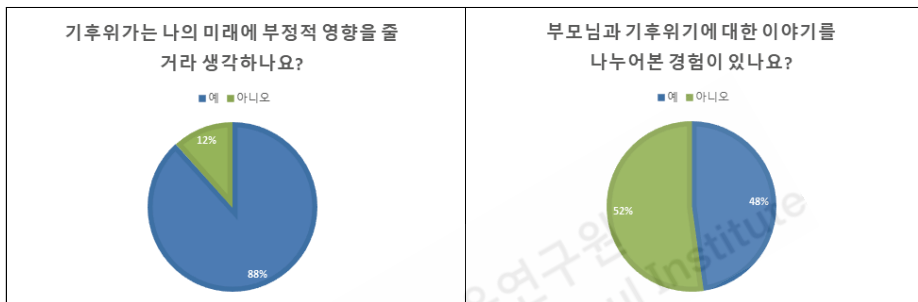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위기는 나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나요?’, ‘부모님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은

있나요?’를 물어보았다. 아동이 응답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기후위기는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아동은 88.3%이었고 부모님과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47.8%로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표 3-7]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수준

구분		인원	백분율
기후위기는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나요?	예	181	88.3 %
	아니요	24	11.7 %
부모님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나요?	예	98	47.8 %
	아니요	107	52.2 %



[그림 3-4] 기후위기가 미래에 영향 인지 수준

‘기후위기와 관련해 부모(어른) 세대에게 화나는 감정을 느끼시나요?’ 질문에 응답은 0점~10점 사이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5.21점(SD=2.39)으로 중간 정도의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표 3-8]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부모 세대에 대한 화나는 감정 인지 수준

구분	평균±표준편차
기후위기와 관련해 부모(어른) 세대에게 화나는 감정을 느끼시나요?	5.21±2.39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인지 수준은 서울 거주하는 아동이나 그렇지 않은 아동 모두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부모님과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응답자의 절반 이하였다([표 3-9] 참고).

[표 3-9]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수준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기후위기는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나요?	예	109(87.9%)	72(88.9%)	181(88.3%)	0.10
	아니요	15(12.1%)	9(11.1%)	24(11.7%)	
부모님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나요?	예	61(49.2%)	37(45.7%)	98(47.8%)	0.94
	아니요	63(50.8%)	44(54.3%)	107(52.2%)	
		124(100%)	81(100%)	205(100%)	

아동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부모 세대에 대한 화나는 감정을 인지한 수준은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3-10]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관련 부모 세대에 대한 화나는 감정 인지 수준

구분	N	M±SD	t-test
서울 거주	124	5.38±2.31	1.25
서울 비거주	81	4.95±2.51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인지 수준은 다음 [표 3-6]과 같다. 기후위기가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초, 중, 고등학생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며 즉, 모든 아동들이 기후위기가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후위기 관련하여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있어 초등학생 집단이 중·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높았다($\chi^2=8.44$, $p<.05$).

[표 3-11]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기후위기는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나요?	예	75 (88.2%)	51 (89.5%)	55 (87.3%)	181 (88.3%)	0.14
	아니요	10 (11.8%)	6 (10.5%)	8 (12.7%)	24 (11.7%)	
부모님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나요?	예	50 (58.8%)	26 (45.6%)	22 (34.9%)	98 (47.8%)	8.44*
	아니요	35 (41.2%)	31 (54.4%)	41 (65.1%)	107 (52.2%)	
		85 (100%)	57 (100%)	63 (100%)	205 (100%)	

* $p < .05$

아동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부모 세대에 대한 화나는 감정을 인지한 수준은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다만, 초등학생이 화나는 감정이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화나는 감정이 낮게 나타났다.

[표 3-12]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 관련 부모 세대에 대한 화나는 감정 인지 수준

구분	N	M±SD	F
초등학생	85	5.66±2.37	2.85
중학생	57	5.11±2.18	
고등학생	63	4.70±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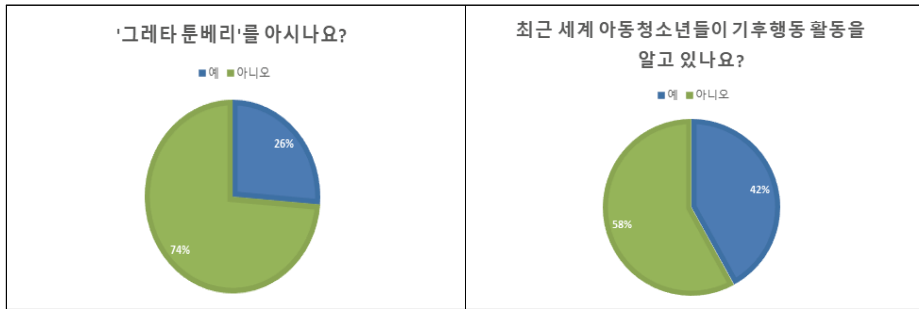
4)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아동이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나요?’를 물어보았다. 아동이 응답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그레타 툰베리’를 알고 있는 아동은 26.3% 정도였다.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는 아동은 42.0%였다.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3]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구분		인원	백분율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예	54	26.3 %
	아니요	151	73.7 %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나요?	예	86	42.0 %
	아니요	119	58.0 %



[그림 3-5]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3-14]와 같다. '그레타 툰베리'를 알고 있는 집단이 서울 거주 아동이 비거주 아동에 비해 인식 비율이 높았다($\chi^2=7.31$, $p<.01$).

[표 3-14]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예	41(33.1%)	13(16.0%)	54(26.3%)	7.31**
	아니오	83(66.9%)	68(84.0%)	151(73.7%)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나요?	예	58(46.8%)	28(34.6%)	86(42.0%)	3.00
	아니오	66(53.2%)	53(65.4%)	119(58.0%)	
		124(100%)	81(100%)	205(100%)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다음 [표 3-15]와 같다. 초, 중, 고등학생 모두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넘었다. 그리고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30.2%~48.2%로 나타났으며, 초, 중, 고등학생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도는 초,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인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5]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예	25 (29.4%)	19 (33.3%)	10 (15.9%)	54 (26.3%)	5.41
	아니요	60 (70.6%)	38 (66.7%)	53 (84.1%)	151 (73.7%)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나요?	예	41 (48.2%)	26 (45.6%)	19 (30.2%)	86 (42.0%)	5.29
	아니요	44 (51.8%)	31 (54.4%)	44 (69.8%)	119 (69.8%)	
		85 (100%)	57 (100%)	63 (100%)	2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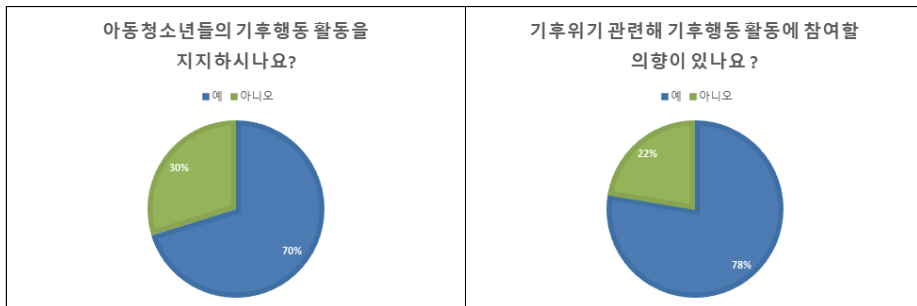
5) 아동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아동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시나요?’, ‘기후위기 관련해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를 물어보았다. 아동이 응답한 결과는 [표 3-16]과 같다.

아동들은 기후행동 활동에 대해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로,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고 참여할 의향은 7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3-16]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인식

구분		인원	백분율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시나요?	예	144	70.2%
	아니요	61	29.8%
기후위기 관련해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예	159	77.6%
	아니요	46	22.4%



[그림 3-6]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와 활동 참여 의사에 대한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3-17).

[표 3-17]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시나요?	예	90(72.6%)	54(66.7%)	144(70.2%)	0.82
	아니요	34(27.4%)	27(33.3%)	61(29.8%)	
기후위기 관련해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예	97(78.2%)	62(76.5%)	159(77.6%)	0.08
	아니요	27(21.8%)	19(23.5%)	46(22.4%)	
		124(100%)	81(100%)	205(100%)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활동에 관한 인식 수준은 다음 [표 3-18]과 같다. 기후행동 활동 참여 및 지지에 관한 의사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61.9%~80.7%로 참여 의향이 높았으며, 초, 중, 고등학생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기후행동에 대한 참여 활동의 의향 및 지지수준은 중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시나요?	예	61 (71.8%)	44 (77.2%)	39 (61.9%)	144 (70.2%)	3.51
	아니요	24 (28.2%)	13 (22.8%)	24 (38.1%)	61 (29.8%)	
기후위기 관련해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예	67 (78.8%)	46 (80.7%)	46 (73.0%)	159 (77.6%)	1.15
	아니요	18 (21.2%)	11 (19.3%)	17 (27.0%)	46 (22.4%)	
		85 (100%)	57 (100%)	63 (100%)	205 (100%)	

6) 기후변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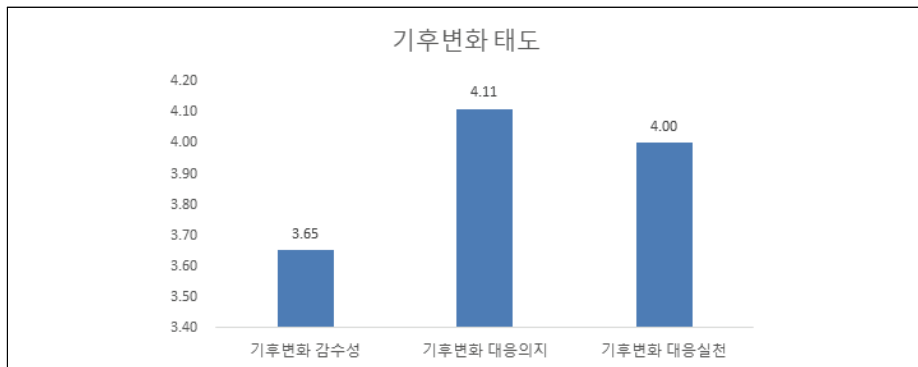
아동이 인식한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19]와 같다. 기후변화 감수성은 3.65점(SD=0.77), 기후변화 대응 의지는 4.11점(SD=0.67), 기후변화 대응 실천은 4.00점(SD=0.67)으로 나타나, 기후변화 감수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점수는 4.19점(SD=0.85)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M=4.17, SD=0.85),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할 생각이 있다’가 4.17점(SD=0.76)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에 있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에 4.45점(SD=0.73)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다음으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에 4.23점(SD=0.91)으로 나타났다.

[표 3-19] 기후변화 태도 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기후변화 감수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고 생각한다.	4.24	0.79
	기후변화에 관한 책이나 TV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본다.	3.27	1.07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	3.73	0.92
	인간생활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	3.34	1.01
	전체	3.65	0.77
기후변화 대응 의지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할 생각이 있다.	4.17	0.76
	기후변화를 줄이는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4.19	0.85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참여할 생각이 있다.	4.00	0.92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17	0.85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노력한다.	4.03	0.95
	전체	4.11	0.67
기후변화 대응 실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겠다.	3.73	0.97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겠다.	3.73	0.95
	일회용 젓가락과 컵은 사용하지 않겠다.	4.09	0.86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4.45	0.73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선의 플러그를 뽑는다.	3.79	1.05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4.23	0.91
	전체	4.00	0.67



[그림 3-기] 기후변화 태도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20]).

[표 3-20]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t-test
기후변화 감수성	3.67±0.77	3.61±0.78	0.53
기후변화 대응 의지	4.12±0.69	4.09±0.63	0.35
기후변화 대응 실천	4.03±0.67	3.96±0.67	0.79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의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 점수는 다음 [표 3-21]과 같다. 초, 중, 고등학생 간의 기후변화의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 점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기후변화 감수성, 기후변화 대응 의지, 대응 실천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21]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기후변화 감수성	3.76±0.77	3.57±0.72	3.56±0.83	1.71
기후변화 대응 의지	4.17±0.68	4.15±0.57	3.98±0.72	1.48
기후변화 대응 실천	4.13±0.65	4.00±0.56	3.84±0.76	2.99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중 기후변화 감수성($t=3.49$, $p<.001$), 기후변화 대응 의지($t=2.12$,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 실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22]).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기후변화의 감수성과 기후변화의 대응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2]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구분	교육 경험	교육 비경험	t-test
기후변화 감수성	3.77±0.79	3.38±0.67	3.49***
기후변화 대응 의지	4.18±0.67	3.97±0.64	2.12*
기후변화 대응 실천	4.04±0.66	3.91±0.70	1.31

*** $p < .001$, * $p < .05$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중 기후변화 감수성($t=3.78$, $p<.001$), 기후변화 대응 의지($t=2.80$, $p<.01$), 기후변화 대응 실천($t=2.15$,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23]).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기후변화의 태도인 기후변화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3-23]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구분	심각성 인지	심각성 비인지	t-test
기후변화 감수성	3.69±0.76	2.72±0.48	3.78***
기후변화 대응 의지	4.14±0.66	3.51±0.54	2.80**
기후변화 대응 실천	4.02±0.66	3.54±0.67	2.15*

** $p < .01$, * $p < .05$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중 기후변화 감수성($t=5.85$, $p<.001$), 기후변화 대응 의지($t=4.55$, $p<.001$), 기후변화 대응 실천($t=3.65$,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24]).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기후변화의 태도인 기후변화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3-24]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구분	기후행동 인지	기후행동 비인지	t-test
기후변화 감수성	3.99±0.71	3.40±0.72	5.85***
기후변화 대응 의지	4.35±0.60	3.94±0.66	4.55***
기후변화 대응 실천	4.20±0.56	3.86±0.71	3.65***

*** $p < .001$

7) 기후변화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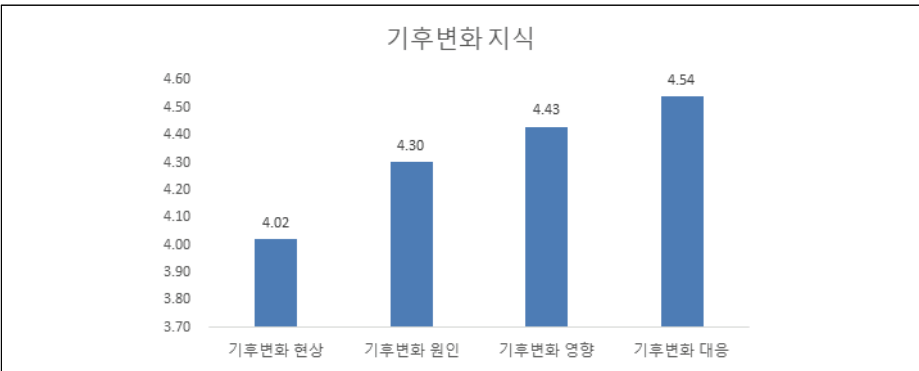
아동이 인식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25]와 같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인 현상은 4.02점($SD=0.70$), 기후변화 원인은 4.30점($SD=0.67$), 기후변화 영향은 4.43점($SD=0.65$), 기후변화 대응은 4.54점($SD=0.60$)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중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지식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에 비해 기후변화 현상에 관한 점수는 낮았다.

기후변화 현상에 있어 '지구의 기후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는 4.45점(SD=0.70)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기후변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35점(SD=0.74)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원인에 관한 지식은 '숲의 나무를 많이 베어내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47점(SD=0.76)이고,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도 4.47점(SD=0.72)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 지식은 4.34~4.58점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이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58점(SD=0.68)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지식은 4.35점 ~4.66점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66점(SD=0.63)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표 3-25] 기후변화 지식 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기후변화 현상	지구의 기후 환경이 변하고 있다.	4.45	0.70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설명할 수 있다.	3.80	1.00
	기후변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4.35	0.74
	기후변화에 영향을 덜 미치는 에너지 생산 방법을 알고 있다.	3.46	1.12
	전체	4.02	0.70
기후변화 원인	지진,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3.95	0.95
	숲의 나무를 많이 베어내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4.47	0.76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4.47	0.72
	전체	4.30	0.67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이 있다.	4.58	0.68
	기후변화는 인간의 사회경제문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4.34	0.82
	기후변화 때문에 땅이 바닷물에 잠겨 살 곳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4.35	0.81
	기후변화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4.45	0.77
	전체	4.43	0.65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4.50	0.70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66	0.63
	석유나 석탄을 적게 사용하면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다.	4.35	0.78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	4.64	0.67
	전체	4.54	0.60



[그림 3-8] 기후변화 지식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에 관련 지식인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3-26]).

[표 3-26]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t-test
기후변화 현상	4.04±0.70	3.98±0.70	0.69
기후변화 원인	4.31±0.66	4.28±0.68	0.35
기후변화 영향	4.45±0.64	4.40±0.67	0.50
기후변화 대응	4.57±0.60	4.49±0.60	0.93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점수는 다음 [표 3-27]과 같다. 초, 중, 고등학생 간의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에 관한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지식은 초, 중등학생이 고등 학생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3.68$, $p<.05$).

[표 3-27]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비교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F
기후변화 현상	4.09±0.66	4.00±0.71	3.93±0.73	0.97
기후변화 원인	4.38±0.58	4.33±0.66	4.15±0.78	2.00
기후변화 영향	4.45±0.56	4.54±0.54	4.31±0.82	1.62
기후변화 대응	4.64±0.50	4.60±0.49	4.35±0.76	3.68*

* $p < .05$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중 기후변화 현상($t=2.32$, $p<.05$), 기후변화 원인($t=2.36$, $p<.01$), 기후변화 영향($t=2.43$, $p<.05$), 기후변화 대응($t=2.28$,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28]).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해 더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8]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구분	교육 경험	교육 비경험	t-test
기후변화 현상	4.09±0.70	3.85±0.66	2.32*
기후변화 원인	4.38±0.65	4.12±0.69	2.36**
기후변화 영향	4.50±0.65	4.27±0.63	2.43*
기후변화 대응	4.60±0.57	4.40±0.65	2.28*

** $p < .01$, * $p < .05$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중 기후변화 현상($t=3.08$, $p<.01$), 기후변화 원인($t=2.40$, $p<.05$), 기후변화 영향($t=2.45$, $p<.05$), 기후변화 대응($t=4.02$,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29]).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9]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구분	심각성 인지	심각성 비인지	t-test
기후변화 현상	4.05±0.68	3.33±0.65	3.08**
기후변화 원인	4.32±0.65	3.78±0.83	2.40*
기후변화 영향	4.45±0.64	3.92±0.72	2.45*
기후변화 대응	4.57±0.57	3.78±0.78	4.02***

** $p < .01$, * $p < .05$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기후변화 지식 중 기후변화 현상($t=5.07$, $p<.001$), 기후변화 원인($t=3.60$, $p<.001$), 기후변화 영향($t=2.73$, $p<.01$), 기후변화 대응($t=2.54$,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30]).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해 더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0]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기후변화 지식

구분	기후행동 인지	기후행동 비인지	t-test
기후변화 현상	4.29±0.62	3.82±0.71	5.07***
기후변화 원인	4.49±0.60	4.16±0.69	3.60***
기후변화 영향	4.57±0.60	4.33±0.67	2.73**
기후변화 대응	4.66±0.52	4.45±0.64	2.54*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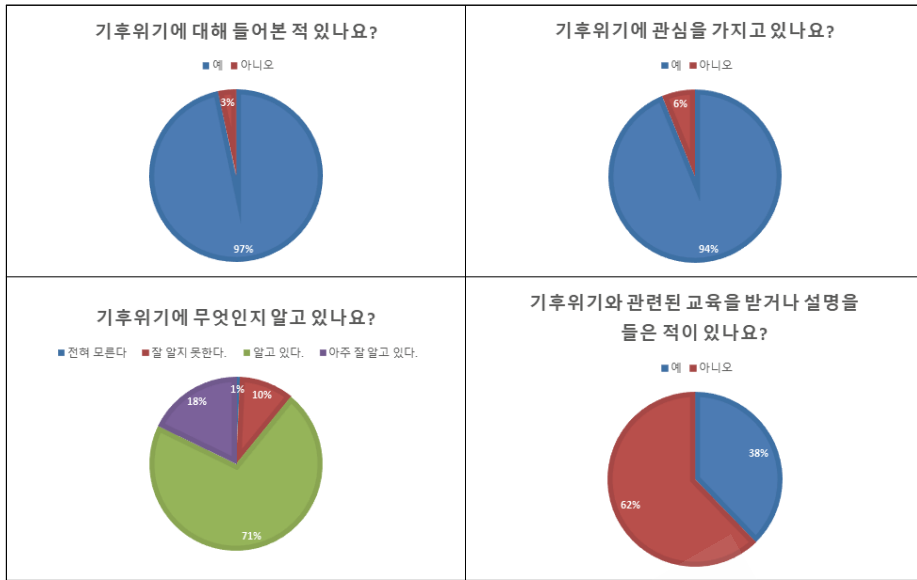
2_부모가 인식한 기후위기 및 대응 방식

1)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부모가 응답한 결과는 [표 3-31]과 같다. 응답 부모의 96.7%가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기후위기 관심도는 93.8%로 높은 수준이었다.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가 71.3%,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7.8%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89.1%이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부모는 37.8%로 응답자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표 3-31] 기후위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수준

구분		인원	백분율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226	96.7%
	아니요	9	3.3%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	258	93.8%
	아니요	17	6.2%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른다	2	0.7%
	잘 알지 못한다	28	10.2%
	알고 있다	196	71.3%
	아주 잘 알고 있다	49	17.8%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예	104	37.8%
	아니요	171	62.2%



[그림 3-9] 기후위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 3-32]와 같다. 서울 거주 부모가 서울 비거주 부모에 비해 기후위기 교육 경험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2=4.50$, $p<.05$). 기후위기에 대한 들어본 경험, 기후위기에 관심과 인지도 등은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3-32]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수준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149(98.0%)	117(95.1%)	266(96.7%)	1.81
	아니요	3(2.0%)	6(4.9%)	9(3.3%)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	142(93.4%)	116(94.3%)	258(93.8%)	0.09
	아니요	10(6.6%)	7(5.7%)	17(6.2%)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른다	1(0.7%)	1(0.8%)	2(0.7%)	1.98
	잘 알지 못한다	12(7.9%)	16(13.0%)	28(10.2%)	
	알고 있다	111(73.0%)	85(69.1%)	196(71.3%)	
	아주 잘 알고 있다	28(18.4%)	21(17.1%)	49(17.8%)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예	49(32.2%)	55(44.7%)	104(37.8%)	4.50*
	아니요	103(67.8%)	68(55.3%)	171(62.2%)	
		152(100%)	123(100%)	275(100%)	

* $p < .05$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한 결과, 다음 [표 3-33]과 같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는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3]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수준

구분		영유아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중등	고등	전체	χ^2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75 (93.8%)	76 (97.4%)	61 (98.4%)	30 (96.8%)	24 (100%)	266 (96.7%)	3.72
	아니요	5 (6.3%)	2 (2.6%)	1 (1.6%)	1 (3.2%)	0 (0.0%)	9 (3.3%)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	70 (87.5%)	74 (94.9%)	61 (98.4%)	30 (96.8%)	23 (95.8%)	258 (93.8%)	8.52
	아니요	10 (12.5%)	4 (5.1%)	1 (1.6%)	1 (3.2%)	1 (4.2%)	17 (6.2%)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른다	1 (1.3%)	0 (0.0%)	1 (1.6%)	0 (0.0%)	0 (0.0%)	2 (0.7%)	16.2
	잘 알지 못한다.	13 (16.3%)	9 (11.5%)	2 (3.2%)	1 (3.2%)	3 (12.5%)	28 (10.2%)	
	알고 있다.	57 (71.3%)	55 (70.5%)	43 (69.4%)	22 (71.0%)	19 (79.2%)	196 (71.3%)	
	아주 잘 알고 있다.	9 (11.3%)	14 (17.9%)	16 (25.8%)	8 (25.8%)	2 (8.3%)	49 (17.8%)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예	27 (33.8%)	28 (35.9%)	22 (35.5%)	12 (38.7%)	15 (62.5%)	104 (37.8%)	7.06
	아니요	53 (66.3%)	50 (64.1%)	40 (64.5%)	19 (61.3%)	9 (37.5%)	171 (62.2%)	
		80 (100%)	78 (100%)	62 (100%)	31 (100%)	24 (100%)	275 (100%)	

‘기후위기’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은 다음 [그림 3-10]과 같다. 부모들은 ‘지구온난화’, ‘북극곰’, ‘폭염’, ‘빙하’, ‘해수면’, ‘기상이변’, ‘탄소 배출’, ‘이상 기온’ 등의 단어를 언급하였다.



[그림 3-10] 부모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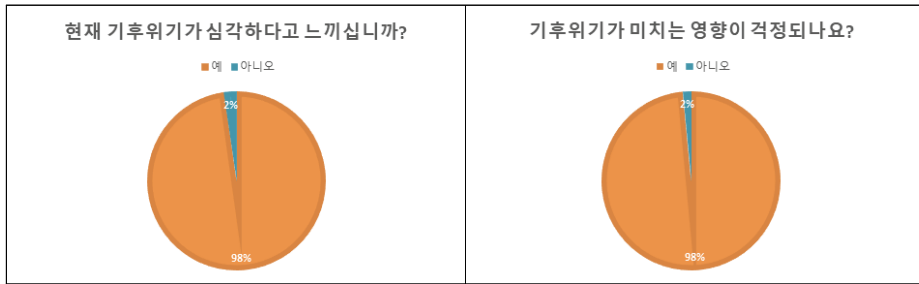
2)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나요?’를 물어보았다. 부모가 응답한 결과는 [표 3-34]과 같다.

부모들은 약 98% 정도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걱정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3-34] 기후위기 심각성 부모의 인지 수준

구분		인원	백분율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269	97.8%
	아니요	6	2.2%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나요?	예	271	98.5%
	아니요	4	1.5%



[그림 3-11]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

부모들은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지 수준은 서울 거주하는 부모나 그렇지 않은 부모 모두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표 3-35] 참고).

[표 3-35]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부모의 인지 수준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148(97.4%)	121(98.4%)	269(97.8%)	0.32
	아니오	4(2.6%)	2(1.6%)	6(2.2%)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나요?	예	149(98.0%)	122(99.2%)	271(98.5%)	0.94
	아니오	3(2.0%)	1(0.8%)	4(1.5%)	
		152(100%)	123(100%)	275(100%)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수준을 확인한 결과, 다음 [표 3-36]과 같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지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자녀의 발달단계와 상관없이 부모들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3-36]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구분		영유아	초등1-3	초등4-6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77 (96.3%)	77 (98.7%)	62 (100%)	29 (93.5%)	24 (100%)	269 (97.8%)	5.78
	아니오	3 (3.8%)	1 (1.3%)	0 (0.0%)	2 (6.5%)	0 (0.0%)	6 (2.2%)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나요?	예	77 (96.3%)	78 (100%)	62 (100%)	30 (96.8%)	24 (100%)	271 (98.5%)	6.04
	아니오	3 (3.8%)	0 (0.0%)	0 (0.0%)	1 (3.2%)	0 (0.0%)	4 (1.5%)	
		80 (100%)	78 (100%)	62 (100%)	31 (100%)	24 (100%)	2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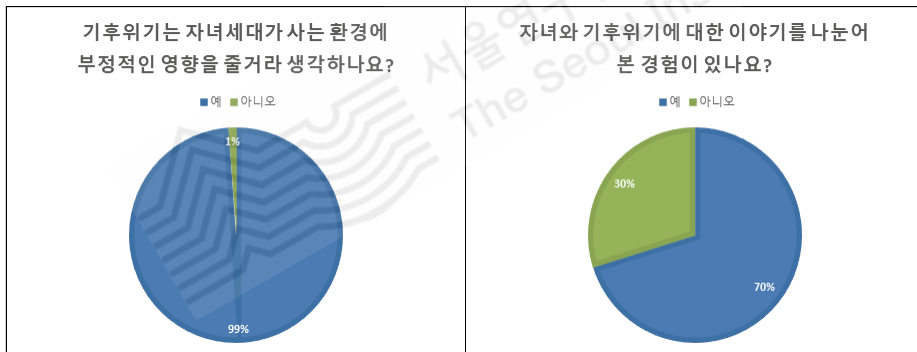
3)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후위기는 자녀 세대가 사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나요?’, ‘자녀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나요?’를 물어보았다. 부모가 응답한 결과는 [표 3-37]과 같다.

기후위기는 자녀 세대가 사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부모는 98.9%이었고 자녀와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은 70.2%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아동 결과에서는 부모님과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50% 이하로 아동과 부모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3-37]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인지 수준

구분		인원	백분율
기후위기는 자녀 세대가 사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나요?	예	272	98.9%
	아니요	3	1.1%
자녀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나요?	예	193	70.2%
	아니요	82	29.8%



[그림 3-12] 기후위기가 미래에 영향 인지 수준

‘기후위기와 관련해 미래세대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시나요?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질문에 응답은 0점~ 10점 사이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모들은 8.08점(SD=1.57)으로 미안한 감정을 높게 인식하였다.

[표 3-38]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한 감정 인지 수준

구분	평균±표준편차
기후위기와 관련해 미래세대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시나요?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8.08±1.57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부모의 인지 수준은 서울 거주하는 부모나 그렇지 않은 부모 모두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와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70% 정도였다.([표 3-39] 참고).

[표 3-39]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인지 수준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기후위기는 나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나요?	예	149(98.0%)	123(100%)	272(98.9%)	2.45
	아니요	3(2.0%)	0(0.0%)	3(1.1%)	
자녀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나요?	예	109(71.7%)	84(68.3%)	193(70.2%)	0.38
	아니요	43(28.3%)	39(31.7%)	82(29.8%)	
		152(100%)	123(100%)	275(100%)	

부모들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미래세대에게 미안한 감정을 인지한 수준은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3-40]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위기 관련 미래세대에게 미안한 감정 인지 수준

구분	N	M±SD	t-test
서울 거주	152	8.11±1.67	0.30
서울 비거주	123	8.05±1.45	

부모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수준은 다음 [표 3-41]과 같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가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초, 중, 고등학생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기후위기가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후위기 관련하여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있어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응답하였다($\chi^2=27.6$, $p<.001$).

부모들은 자녀들과 기후위기에 대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시기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1]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구분		영유아	초등1-3	초등4-6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기후위기는 자녀세대가 사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나요?	예	78 (97.5%)	78 (100%)	62 (100%)	30 (96.8%)	24 (100%)	272 (98.9%)	4.59
	아니요	2 (2.5%)	0 (0.0%)	0 (0.0%)	1 (3.2%)	0 (0.0%)	3 (1.1%)	
자녀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나요?	예	39 (48.8%)	59 (75.6%)	53 (85.5%)	22 (71.0%)	20 (83.3%)	193 (70.2%)	27.6***
	아니요	41 (51.2%)	19 (24.4%)	9 (14.5%)	9 (29.0%)	4 (16.7%)	82 (29.8%)	
		80 (100%)	78 (100%)	62 (100%)	31 (100%)	24 (100%)	275 (100%)	

*** $p < .001$

부모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인지한 수준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표 3-42]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위기 관련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한 감정 인지 수준

구분	N	M±SD	F
영유아	80	7.84±1.57	0.90
초등 1~3학년	78	8.21±1.69	
초등 4~6학년	62	8.27±1.33	
중학생	31	8.06±1.53	
고등학생	24	8.00±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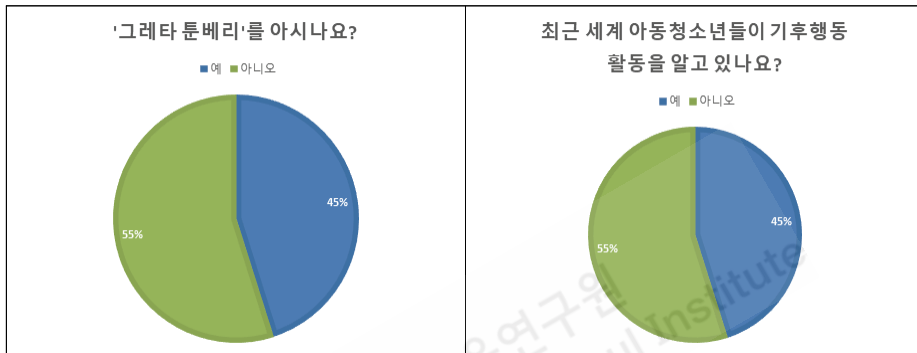
4)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나요?’를 물어보았다. 부모가 응답한 결과는 [표 3-43]과 같다. ‘그레타 툰베리’를 알고 있는 부모는 45.1%이었다. 아동은 20% 정도였지만 부모들은 응답자의 2배 이상 알고 있었다.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는

부모는 48.0%였다.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에 대해서는 아동, 부모 절반 이하 인식하였고 부모의 인식이 좀 더 높았다.

[표 3-43]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구분		인원	백분율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예	124	45.1%
	아니요	151	54.9%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나요?	예	132	48.0%
	아니요	143	52.0%



[그림 3-13]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3-44]와 같다.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서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표 3-44]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예	72(47.4%)	52(42.3%)	124(45.1%)	0.71
	아니요	80(52.6%)	71(57.7%)	151(54.9%)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나요?	예	80(52.6%)	52(42.3%)	132(48.0%)	2.92
	아니요	72(47.4%)	71(57.7%)	143(52.0%)	
		152(100%)	123(100%)	275(100%)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수준은 다음 [표 3-45]와 같다. 부모는 자녀의 연령대와 상관없이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영유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 비해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chi^2=10.0$, $p<.05$). 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들이 자녀의 봉사활동과 자녀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여겨진다.

[표 3-45]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구분		영유아	초등1-3	초등4-6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예	32 (40.0%)	34 (43.6%)	30 (48.4%)	19 (61.3%)	9 (37.5%)	124 (45.1%)	5.02
	아니요	48 (60.0%)	44 (56.4%)	32 (51.6%)	12 (38.7%)	15 (62.5%)	151 (54.9%)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나요?	예	28 (35.0%)	38 (48.7%)	34 (54.8%)	20 (64.5%)	12 (50.0%)	132 (48.0%)	10.0*
	아니요	52 (65.0%)	40 (51.3%)	28 (45.2%)	11 (35.5%)	12 (50.0%)	143 (52.0%)	
		80 (100%)	78 (100%)	62 (100%)	31 (100%)	24 (100%)	275 (100%)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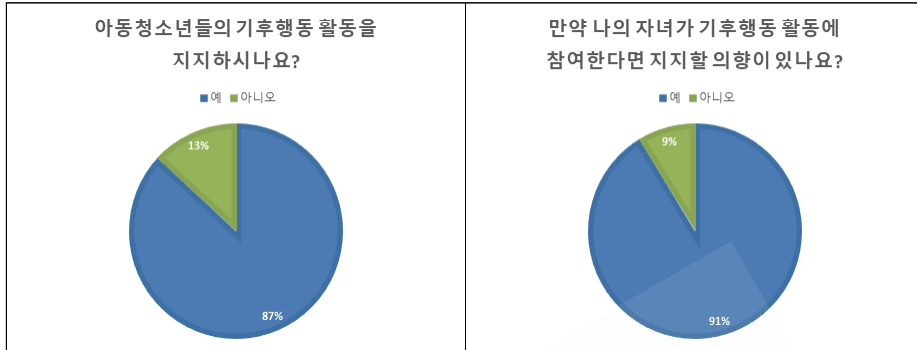
5) 아동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아동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시나요?’, ‘만약 나의 자녀가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한다면 지지할 의향이 있나요?’를 물어보았다. 부모가 응답한 결과는 [표 3-46]과 같다.

아동들의 기후행동 활동에 대해 지지하겠다고 응답이 86.9%, 본인 자녀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91.3%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아동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고 자녀의 참여도 지지할 의향이 높았다.

[표 3-46]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인식

구분		인원	백분율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시나요?	예	239	86.9%
	아니요	36	13.1%
기후위기 관련해 자녀의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를 지지하시나요?	예	251	91.3%
	아니요	24	8.7%



[그림 3-14] 자녀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인식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47]).

[표 3-47]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전체	χ^2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시나요?	예	127(83.6%)	112(91.1%)	239(86.9%)	3.37
	아니요	25(16.4%)	11(8.9%)	36(13.1%)	
기후위기 관련해 자녀의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를 지지하시나요?	예	136(89.5%)	115(93.5%)	251(91.3%)	1.38
	아니요	16(10.5%)	8(6.5%)	24(8.7%)	
		152(100%)	123(100%)	275(100%)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활동에 관한 인식 수준은 다음 [표 3-48]과 같다. 아동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부모는 75.0%~96.8%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 자녀들 둔 부모가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에 비해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았다($\chi^2=9.69$, $p<.05$). 본인의 자녀가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는 부모는 자녀의 발달단계와 상관없이 87.5%~96.8%로 높

았다. 부모들은 자녀가 기후위기 관련 기후행동에 대해 지지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표 3-48]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구분		영유아	초등1-3	초등4-6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χ^2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시나요?	예	69 (86.3%)	64 (82.1%)	58 (93.5%)	30 (96.8%)	18 (75.0%)	239 (86.9%)	9.69*
	아니요	11 (13.8%)	14 (17.9%)	4 (6.5%)	1 (3.2%)	6 (25.0%)	36 (13.1%)	
기후위기 관련해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예	70 (87.5%)	70 (89.7%)	60 (96.8%)	30 (96.8%)	21 (87.5%)	251 (91.3%)	5.62
	아니요	10 (12.5%)	8 (10.3%)	2 (3.2%)	1 (3.2%)	3 (12.5%)	24 (8.7%)	
		80 (100%)	78 (100%)	62 (100%)	31 (100%)	24 (100%)	275 (100%)	

6) 기후변화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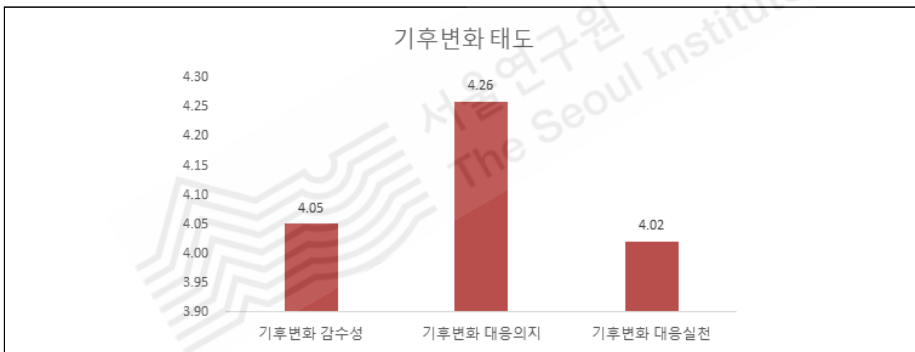
부모가 인식한 기후변화에 대한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49]와 같다. 기후변화 감수성은 4.05점(SD=0.57), 기후변화 대응 의지는 4.26점(SD=0.47), 기후변화 대응 실천은 4.02점(SD=0.5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의지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후변화 실천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후변화 감수성에 대해 3.71점~4.60점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가 4.60점(SD=0.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12점(SD=0.67)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 의지 점수는 4.09점~4.40점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40점(SD=0.54)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4.09점(SD=0.80)로 가장 낮은 점수였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에 대한 점수는 3.73점~4.61점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에 4.61점(SD=0.56)으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선의 플러그를 뽑는다'에 대해 3.73점(SD=1.00)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표 3-49]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기후변화 감수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4.60	0.57
	기후변화에 관한 책이나 TV프로그램을 관심 있게 본다.	3.78	0.79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	4.12	0.67
	인간생활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	3.71	0.80
	전체	4.05	0.57
기후변화 대응 의지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실천할 생각이 있다.	4.40	0.54
	기후변화를 줄이는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4.28	0.63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참여할 생각이 있다.	4.20	0.62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31	0.66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고 노력한다.	4.09	0.80
	전체	4.26	0.47
기후변화 대응 실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겠다.	3.96	0.76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겠다.	3.76	0.79
	일회용 젓가락과 컵은 사용하지 않겠다.	4.14	0.7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4.61	0.56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선의 플러그를 뽑는다.	3.73	1.00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	3.90	0.96
	전체	4.02	0.55



[그림 3-15]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50]).

[표 3-50]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t-test
기후변화 감수성	4.04±0.56	4.06±0.58	-0.26
기후변화 대응 의지	4.25±0.47	4.27±0.48	-0.36
기후변화 대응 실천	4.00±0.56	4.04±0.53	-0.66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의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 점수는 다음 [표 3-51]과 같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의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 점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3-51]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비교

구분	영유아	초등1-3	초등4-6	중학생	고등학생	F
기후변화 감수성	3.98±0.58	3.97±0.56	4.22±0.51	4.06±0.62	4.09±0.56	2.35
기후변화 대응 의지	4.26±0.47	4.19±0.43	4.32±0.51	4.28±0.50	4.26±0.49	0.77
기후변화 대응 실천	4.03±0.60	3.95±0.54	4.09±0.47	4.09±0.61	3.93±0.54	0.87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중 기후변화 감수성 ($t=6.09$, $p<.001$), 기후변화 대응 의지($t=3.92$, $p<.001$), 기후변화 대응 실천($t=4.16$,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3-52]).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기후변화의 감수성, 기후변화의 대응 의지, 기후변화 대응 실천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2]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구분	교육 경험	교육 비경험	t-test
기후변화 감수성	4.30±0.53	3.90±0.54	6.09***
기후변화 대응 의지	4.40±0.48	4.17±0.45	3.92***
기후변화 대응 실천	4.19±0.53	3.91±0.54	4.16***

*** $p < .001$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중 기후변화 감수성($t=4.55$, $p<.001$), 기후변화 대응 의지($t=2.24$, $p<.05$), 기후변화 대응 실천($t=4.22$,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53]).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낀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기후변화의 태도인 기후변화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3-53]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구분	심각성 인지	심각성 비인지	t-test
기후변화 감수성	4.07±0.55	3.04±0.37	4.55***
기후변화 대응 의지	4.27±0.47	3.83±0.29	2.24*
기후변화 대응 실천	4.04±0.53	3.11±0.56	4.22***

*** $p < .001$, * $p < .05$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중 기후변화 감수성($t=6.10$, $p < .001$), 기후변화 대응 의지($t=3.53$, $p < .001$), 기후변화 대응 실천($t=4.24$,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54]).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의 기후 행동 활동을 알고 있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기후변화의 태도인 기후변화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3-54]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구분	기후행동 인지	기후행동 비인지	t-test
기후변화 감수성	4.26±0.55	3.86±0.53	6.10***
기후변화 대응 의지	4.36±0.52	4.16±0.41	3.53***
기후변화 대응 실천	4.16±0.52	3.89±0.54	4.24***

*** $p < .001$

7) 기후변화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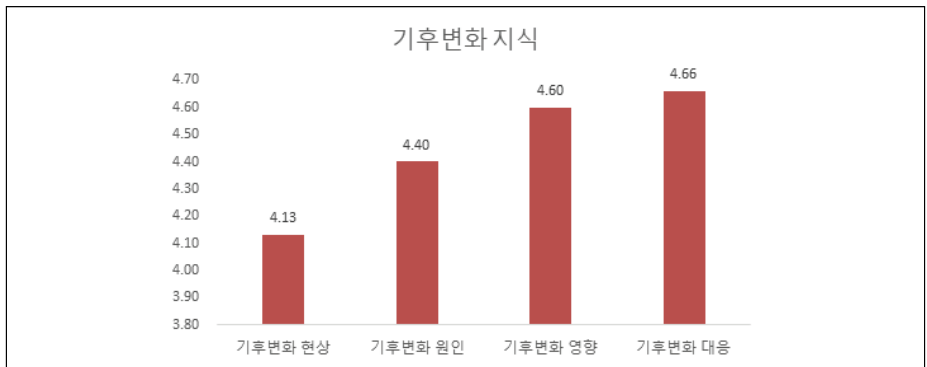
부모가 인식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55]와 같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에서 기후변화 현상은 4.13점($SD=0.51$), 기후변화 원인은 4.40점($SD=0.50$), 기후변화 영향은 4.60점($SD=0.47$), 기후변화 대응은 4.66점($SD=0.42$)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중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에 비해 기후변화 현상에 관한 점수는 낮았다.

기후변화 현상에 있어 ‘지구의 기후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는 4.64점($SD=0.52$)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기후변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44점($SD=0.59$)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원인에 관한 지식은 ‘숲의 나무를 많이 베어내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64점($SD=0.54$)이고,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응

답한 점수도 4.62점(SD=0.58)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영향 지식은 4.48~4.70점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이 있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70(SD=0.48)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관한 지식은 4.44점~4.84점으로 나타났으며,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점수가 4.84점(SD=0.41)로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표 3-55]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점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기후변화 현상	지구의 기후 환경이 변하고 있다.	4.64	0.52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설명할 수 있다.	3.95	0.80
	기후변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4.44	0.59
	기후변화에 영향을 덜 미치는 에너지 생산 방법을 알고 있다.	3.47	0.95
	전체	4.13	0.51
기후변화 원인	지진, 화산활동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3.94	0.82
	숲의 나무를 많이 베어내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4.64	0.54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4.62	0.58
	전체	4.40	0.50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이 있다.	4.70	0.48
	기후변화는 인간의 사회경제문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4.68	0.52
	기후변화 때문에 땅이 비닷물에 잠겨 살 곳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4.48	0.68
	기후변화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4.55	0.61
	전체	4.60	0.47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	4.60	0.6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76	0.49
	석유나 석탄을 적게 사용하면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다.	4.44	0.64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	4.84	0.41
	전체	4.66	0.42



[그림 3-16]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은 기후변화 현상, 원인, 영향, 대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56]).

[표 3-56] 서울 거주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구분	서울 거주	서울 비거주	t-test
기후변화 현상	4.11±0.49	4.14±0.54	-0.55
기후변화 원인	4.38±0.50	4.43±0.50	-0.88
기후변화 영향	4.60±0.45	4.61±0.50	-0.19
기후변화 대응	4.66±0.41	4.66±0.44	-0.08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 대응 점수는 다음 [표 3-57]과 같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에 관한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지식은 중고등학생이 영유아, 초등학생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70$, $p<.05$).

[표 3-57]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기후변화 태도 비교

구분	영유아	초등1-3	초등4-6	중학생	고등학생	F
기후변화 현상	4.02±0.51	4.16±0.49	4.24±0.51	4.11±0.56	4.10±0.48	1.79
기후변화 원인	4.35±0.51	4.45±0.47	4.44±0.44	4.30±0.57	4.40±0.60	0.78
기후변화 영향	4.59±0.49	4.57±0.46	4.70±0.41	4.52±0.52	4.60±0.53	1.13
기후변화 대응	4.63±0.43	4.65±0.39	4.78±0.30	4.56±0.57	4.58±0.52	2.70*

* $p < .05$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중 기후변화 현상($t=5.84$, $p<.001$), 기후변화 원인($t=3.17$, $p<.01$), 기후변화 영향($t=2.11$, $p<.05$)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은 교육 여부에 따라 부모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3-58]).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 원인,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8] 기후위기 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구분	교육 경험	교육 비경험	t-test
기후변화 현상	4.34±0.47	3.99±0.49	5.84***
기후변화 원인	4.52±0.49	4.33±0.49	3.17**
기후변화 영향	4.68±0.44	4.56±0.49	2.11*
기후변화 대응	4.70±0.39	4.63±0.44	1.34

*** $p < .01$, ** $p < .01$, * $p < .05$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중 기후변화 현상($t=2.86$, $p < .01$), 기후변화 원인($t=3.72$, $p < .001$), 기후변화 대응($t=4.49$,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59]).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낀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 원인, 대응에 대해 더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9] 기후위기 심각성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구분	심각성 인지	심각성 비인지	t-test
기후변화 현상	4.14±0.50	3.54±0.53	2.86**
기후변화 원인	4.42±0.48	3.67±0.67	3.72***
기후변화 영향	4.61±0.47	4.29±0.49	1.64
기후변화 대응	4.64±0.40	3.92±0.61	4.49***

*** $p < .001$, ** $p < .01$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중 기후변화 현상($t=4.11$,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원인, 영향, 대응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3-60]).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기후변화의 지식인 현상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 원인, 영향, 대응에 대해서는 기후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들은 높게 인식하였다.

[표 3-60]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른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구분	기후행동 인지	기후행동 비인지	t-test
기후변화 현상	4.25±0.53	4.01±0.46	4.11***
기후변화 원인	4.45±0.52	4.35±0.47	1.71
기후변화 영향	4.63±0.46	4.58±0.48	0.97
기후변화 대응	4.70±0.40	4.62±0.44	1.68

*** $p < .001$

3_아동과 부모가 인식한 기후위기 및 대응 방식 비교

1)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차이는 다음 [표 3-61]와 같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아동에 비해 부모가 더 높았다($\chi^2=52.5$, $p<.001$).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아동은 76.5%이고 부모는 89.1%로 부모가 기후위기를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4.5$, $p<.05$).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아동은 68.3%, 부모는 37.8%로 아동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43.6$, $p<.001$).

[표 3-61]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 수준 비교

구분		부모	아동	전체	χ^2
기후위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예	266(96.7%)	190(92.7%)	456(95.0%)	4.04*
	아니요	9(3.3%)	15(7.3%)	24(5.0%)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	258(93.8%)	141(68.8%)	399(83.1%)	52.5***
	아니요	17(6.2%)	64(31.2%)	81(16.9%)	
기후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전혀 모른다	2(0.7%)	5(2.4%)	7(1.5%)	14.5**
	잘 알지 못한다	28(10.2%)	43(21.0%)	71(14.8%)	
	알고 있다	196(71.3%)	120(58.5%)	316(65.8%)	
	아주 잘 알고 있다	49(17.8%)	37(18.0%)	86(17.9%)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요?	예	104(37.8%)	140(68.3%)	244(50.8%)	43.6***
	아니요	171(62.2%)	65(31.7%)	236(49.2%)	
		275(100%)	205(100%)	480(100%)	

* $p < .05$, ** $p < .01$, *** $p < .001$

2)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 수준의 차이는 다음 [표 3-62]와 같다.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지 수준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과 부모 모두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3-62]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지 수준 비교

구분		부모	아동	전체	χ^2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269(97.8%)	196(95.6%)	465(96.9%)	1.89
	아니요	6(2.2%)	9(4.4%)	15(3.1%)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나요?	예	271(98.5%)	198(96.6%)	469(97.7%)	2.02
	아니요	4(1.5%)	7(3.4%)	15(2.3%)	
		275(100%)	205(100%)	480(100%)	

3)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63]과 같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부모는 98.9%, 아동은 88.3%로 부모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chi^2=24.9$, $p<.001$). 자녀 혹은 부모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에 대해 부모는 70.2%, 아동은 47.8%로 나타났다($\chi^2=24.6$, $p<.001$). 기후위기에 대해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느끼고, 아동은 부모와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3-63]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 수준 비교

구분		부모	아동	전체	χ^2
기후위기는 나의 미래(자녀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나요?	예	272(98.9%)	181(88.3%)	453(94.9%)	24.9***
	아니요	3(1.1%)	24(11.7%)	27(5.6%)	
자녀(부모)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있나요?	예	193(70.2%)	98(47.8%)	291(60.6%)	24.6***
	아니요	82(29.8%)	107(52.2%)	189(39.4%)	
		275(100%)	205(100%)	480(100%)	

*** $p < .001$

아동과 부모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미래세대에 대해 아동은 화나는 감정, 부모는 미안한 감정을 인지한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표 3-64] 참고). 부모가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아동이 부모 세대에 대한 화나는 감정에 비해 높았다($t=15.80$, $p<.001$).

[표 3-64]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 관련 감정 수준 비교

구분	N	M±SD	t-test
아동 (화남)	205	5.21±2.39	15.8***
부모 (미안함)	275	8.08±1.57	

*** $p < .001$

4)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아동과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65]와 같다.

‘그레타 툰베리’를 안다고 인식한 부모는 45.1%, 아동은 26.3%로 부모가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 더 알고 있었다($\chi^2=17.7$, $p<.001$).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는 부모는 48.0%, 아동은 42.0%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65] 아동과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부모	아동	전체	χ^2
‘그레타 툰베리’를 아시나요?	예	124(45.1%)	54(26.3%)	178(37.1%)	17.7***
	아니요	151(54.9%)	151(73.7%)	302(62.9%)	
최근 세계 아동·청소년들이 기후행동 활동을 알고 있나요?	예	132(48.0%)	86(42.0%)	218(45.4%)	1.73
	아니요	143(52.0%)	119(58.0%)	262(54.6%)	
		275(100%)	205(100%)	480(100%)	

*** $p < .001$

5) 아동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수준

아동과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66]과 같다.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아동은 70.2%, 부모는 86.9%로 아동에 비해 부모가 기후행동 활동에 대해 지지하는 수준이 높았다($\chi^2=20.2$, $p<.001$). 기후위기 관련해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할 의향은 아동은 77.6%, 부모는 91.3%로 나타났다($\chi^2=17.7$, $p<.001$). 아동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 활동 의사에 있어 아동에 비해 부모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3-66] 아동과 부모의 기후행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향 인식 비교

구분		부모	아동	전체	χ^2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 활동을 지지하시나요?	예	239(86.9%)	144(70.2%)	383(79.8%)	20.2***
	아니요	36(13.1%)	61(29.8%)	97(20.2%)	
(자녀가) 기후위기 관련해 기후행동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예	251(91.3%)	159(77.6%)	410(85.4%)	17.7***
	아니요	24(8.7%)	46(22.4%)	70(14.6%)	
		275(100%)	205(100%)	480(100%)	

*** $p < .001$

6) 기후변화 태도

아동과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를 비교한 결과, 기후변화 감수성($t=6.60$, $p < .001$), 기후변화 대응 의지($t=2.84$,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기후변화 대응 실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67]). 부모들이 아동에 비해 기후변화 감수성, 대응 의지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 실천 태도에 대해서는 부모와 아동 모두 높게 인식하였다.

[표 3-67] 아동과 부모의 기후변화 태도 비교

구분	부모	아동	t-test
기후변화 감수성	4.05±0.57	3.65±0.77	6.60***
기후변화 대응 의지	4.26±0.47	4.11±0.67	2.84**
기후변화 대응 실천	4.02±0.55	4.00±0.67	0.27

** $p < .01$, *** $p < .001$

7) 기후변화 지식

아동과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을 비교한 결과, 기후변화 현상($t=1.97$, $p < .05$), 기후변화 영향($t=3.40$, $p < .001$), 기후변화 대응($t=2.55$,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기후변화 원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68]). 부모들이 아동에 비해 기후변화 현상, 영향, 대응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는 부모와 아동 모두 높게 인식하였다.

[표 3-68] 아동과 부모의 기후변화 지식 비교

구분	부모	아동	t-test
기후변화 현상	4.13±0.51	4.02±0.70	1.97*
기후변화 원인	4.40±0.50	4.30±0.67	1.93
기후변화 영향	4.60±0.47	4.43±0.65	3.40***
기후변화 대응	4.66±0.42	4.54±0.60	2.55*

* $p < .05$, *** $p < .001$

8)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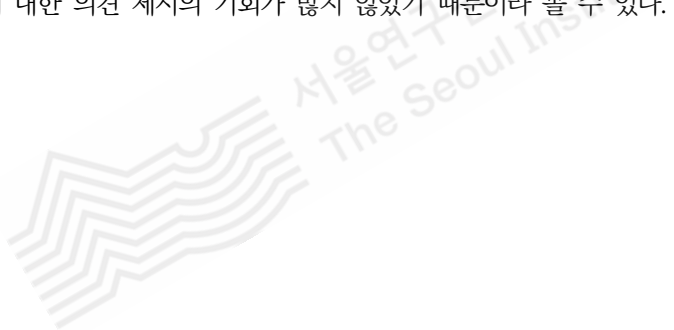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된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과 부모는 기후 위기에 대해 들어 본 경험이 90% 이상이었고,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90% 이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지는 높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과 부모가 기후위기가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심각성 인지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도 낮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이러한 심각성 인지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약 68%에 그쳤다. 이는 부모의 90%가 넘는 관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후위기에 대한 감정에서도 나타나 부모가 미래세대에게 느끼는 미안한 감정에 비하여 아동이 부모인 성인 세대에게 느끼는 분노의 감정보다 낮았다. 이처럼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걱정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기후위기 관심도가 중요한 것은 관심의 부족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실천과 태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각성 인지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의 관심도는 부모의 관심도보다 현저히 낮은 차이를 보인 만큼 부모와는 다른 아동에게만 해당하는 차별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교육을 받은 경험은 아동은 68.3%, 부모는 37.8%로 아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에 기후위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학교에서 과학, 환경 교육 등 기후위기와 유사한 주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은 기후위기 교육 경험에 따라 기후변화 감수성, 대응 의지에 차이를 보였으므로 아동의 기후위기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기후위기 교육 경험이 부모의 기후변화 감수성, 대응 의지, 대응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부모들을 위한 기후위기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식인 기후행동에 대해서는 아동은 낮은 인식을 보였다.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을 알고 있는 아동은 26.3%로 나타났으며 세계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에 대해서도 절반 이하(42.0%)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기후행동을 지지하는 경우는 70.2%, 그러한 기후행동에 참여할 의향은 77.6%로 나타나 기후행동에 대한 인지보다는 지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지지나 참여 의향이 약 70%라는 점에서 아주 높은 편이라 보기에는 힘들다. 부모의 경우도 아동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스스로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아동과 부모가 전반적으로 기후행동에 대한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부모의 설문 조사 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성인 세대인 부모가 아동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지, 기후위기 지식, 기후위기 대응 태도, 기후행동 참여 의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보다는 아동이 사회문제에 관심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이 사회문제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04.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행동에 관한 인터뷰 결과

1_아동이 인식한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1) 문제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딱히 관심 있진 않아요 (기후위기 인식)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환경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미디어와 교육 등을 통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기후 위기 문제를 찾아보는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는 않았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동1)

북극곰이 사는 곳이 없어진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아동2)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 생활할 때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기후 위기가 조금 심각하다는 거는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3)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들을 좀 보면서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많은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동4)

저도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는데 딱히 좀 직접적으로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동5)

저도 그냥 평소에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거에서 관심 있게 보긴 했는데 딱히 막 그렇게 찾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동6)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로는 현재 심각하게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도 실시된 기후위기 교육도 이론 위주라 실제 기후위기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그 이유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약간 심각성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먼 얘기 같고. (아동4)

지금 사는 제 세대와는 약간 연관이 좀 적다고 생각해서. 좀 미래의 얘기 같고 그래요. (아동5)

학교에서 배워도 개념 이런 거를 배우지. 현재 상황이나 이런 거는 안 배워 경각심이나 이런 건 좀 없는 거 같아요. (아동6)

2) 배운 적은 있어서 알고는 있어요 (기후위기 지식)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이었으나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 현상들에 대한 지식으로 ‘온난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식들은 대부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거나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지식들이었다.

우선 학교에서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어떤 나라들은 해수면이 올라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게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 거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돼요. 그 기후위기 때문에 홍수나 가뭄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동물들이 이제 자기가 살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고도 알고 있어요. (아동1)

북극곰, 북극곰이 사는 곳이 없어진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어. (아동2)

여름에 온도가 더 높아져서 더워지거나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아동2)

탄소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온실가스 배출에서. 주로 공장에서 쓰는 자동차 등의 그 외 매연이나. (아동3)

지구온난화 (아동4)

계절마다 약간 연도가 지나면서 겨울에 전에 원래 추었던 것보다 더 춥고 이런 거 날씨 변화요. (아동5)

딱히 알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 이런 거 말고는. (아동6)

3)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아무 감정 없어요 (기후위기에 대한 감정)

기후위기를 생각하면 부정적 감정이 들었지만 심각하게 감정을 토로하지는 않았다. 무덤덤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였다.

좀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1)

모르겠어요. (아동2)

불안하다. (아동3)

좀 걱정되고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드는데 약간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동4)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5)

약간 무섭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6)

4) 나쁜 인간. 모두의 잘못이에요 (기후위기 책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모두 생각하였다. 한편 산업화로 인한 결과이기에 사

람에게 책임이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도 보였다.

그저는 순전히 다른 동물이나 그런 거는(책임은) 전혀 없고 인간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아동1)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요. (아동2)

딱히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동3)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고 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약간 산업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동4)

약간 국가가 약간 통제를 못 해서 더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가 그런 것 같아요. (아동5)

굳이 누구 책임이라고는 말 못 할 것 같아요. 애초에 다 이렇게 된 것도 산업화가 제일 큰 원인인데, 산업화라는 게 애초에 편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애초에 본능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꼭 집어서 말하면 그런 산업화를 하면서 약간 기후에 대해 생각 안 한 점 같은 거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5) 아동의 목소리가 호소력 있어요 (기후행동 참여)

아동과 청소년의 기후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었다. 그레타 툰베리처럼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멋지다는 반응이 높았다. 반면 등교 거부와 같은 강력한 시위 행동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굉장히 용기 있고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나서서 먼저 세상에 알리고 이거를 해결하자고 하는 마음이 정말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아동1)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아동2)

물론 기후행동을 하는 것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학교는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니 공부 같은 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3)

아동과 청소년의 기후행동이 기후위기 문제에 더 호소력 높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아동의 참여로 기후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도 하였다.

나이 많은 어른들보다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자체가 미래세대한테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좀 더 자기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와닿고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후 행동에 참여를 하면 좀 세상

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동4)

지금 학생들이 그런 기후 활동에 참여를 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더 잘 극복할 것 같아서. (아동5)

반면 이러한 아동의 기후행동에 어른들의 관심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었다.

근데 애초에 저희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그레타 툰베리처럼 시위를 해도 나라 자체가 그걸 안 보고 안 듣고 무시해 버리면 안 될 수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아동6)

6)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후행동 참여)

기후행동이 생소하긴 했지만, 기후행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다. 그러나 아주 적극적인 참여라기보다는 주변에 기후행동을 하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는 소극적인 참여가 대부분이었다.

저는 잘 못 할 것 같아서. 해보고 싶는데 잘 못 할 것 같아요. (아동1)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아동2)

참여할 의향은 있어요. 참여하지 못하면 도움이라도 되고(싶어요). (아동 4)

기회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막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동5)

집에서 빈둥대고 있을 시간에 그거라도 하면은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만약에 시위 같은 게 근처에서 열리거나 아니면 진짜 큰일이 터졌는데 국가가 방관한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참여할 것 같아요. (아동6)

기후행동 참여가 번거로울 것 같아 참여를 거부하는 아동도 있었다. 반면에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을 주도하지는 않아도 주변에 기후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참여하거나 도와주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

좀 귀찮은 것 같다. 물론 그게 막 싫고 그 자체만으로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좀 번거롭다고 해야 되나. (아동3)

친구가 완전 심각하거나 진지한 마음이면 그래도 관심을 기울여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아동3)

7) 막연하지만 사소한 노력부터 할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른들이 해야 할 것과 아동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동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어른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의식 고취와 관련된 것들과 친환경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아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동들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낮은 인식을 걱정하듯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아동의 의견은 발달 수준에 따라 다양하였다.

[표 4-1] 어른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

구분	비고
아동1	친환경 제품 사용 전기차 예코백같이 플라스틱 줄이기
아동2	나무 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자동차 매연 줄이기)
아동3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주기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 되는 제품 생산
아동4	- 생태계 파괴 금지 - 정부 신재생에너지 같은 환경보호 제품 방법 국민에게 홍보 -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개발 - 공익광고 등을 통한 기후위기 심각성 홍보
아동5	- 생태계 파괴 금지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 파괴하지 않기) - 생태공원 조성
아동6	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 실시

[표 4-2] 아동들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들

구분	비고
아동1	방 안에 불 끄기 가까운 거리 자전거 이용하거나 걷기
아동2	분리수거 하기 친환경 물품 사용하기 캠페인 참여하기
아동3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 * 아동이 해야 할 노력이 어른들과 다르지 않아요
아동4	제로 웨이스트 같은 운동 독려 기후위기 심각성 홍보
아동5	관심 갖기
아동6	관심 갖기 (뉴스 등)

2_부모가 인식한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1) 예전과 기후가 달라진 것은 알아요 (기후위기 인식)

부모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평소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다. 지식도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등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은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지식은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이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경우에는 기후위기의 문제에는 더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올해 유난히, 유럽에도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거... 올해 많이 관심 있게 보고. (부모2)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저기서 보는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하게 되었을 때 그냥 그렇게 보는 정도. 평상시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럴 때 한번 정도씩 눈이 가는. (부모3)

다큐멘터리에서 빙하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녹아내리는 데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부모1)

2) 두렵긴 해요 (기후위기에 대한 감정)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삶의 경험을 통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동이 가지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었다.

일본의 쓰나미처럼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생긴 거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부모1)

불안하고 무섭고. 뭔가 자연에 대한 거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부모3)

진짜 이렇게 가다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유난히 산불도 많았고, 어디는 너무 춥기도 하고 또 어디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의 종말처럼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영화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부모2)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기도 하였지만 모든 부모가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경각심을 갖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요즘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후손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싶냐. (부모1)

그런데 당장 나한테 온 건 아니니까. 경각심이 그렇게 또 금방 잊어버리는 거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부모1)

아직은 그렇게까지 미안하다는 감정까지는 (부모2)

이런 상황까지 된 거가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조금 책임도 느끼고. (부모3)

3)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에요 (기후위기의 책임)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에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더 중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특정 대상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는 생각하기도 하였다.

기업. 만드는 거나 이걸 하는 사람들은 기업인데 그런 거를 만들 때 환경을 생각해야... 그런데 책임을 누구 하나한테 딱 지우기는. (부모3)

한편으로는 기업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나 이런 걸로 정해서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 (부모2)

4) 아동의 목소리가 파급력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의 참여는? (아동의 기후행동 참여)

부모는 아동이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아동의 기후행동이 긍정적 파급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였다. 자녀들의 기후행동 참여를 지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위 참여 등 적극적인 행동에는 반감을 보였으며 기후행동 참여를 권유하지는 않을 것이라 하였다.

이제 목소리가 나왔으니깐. 이제 좀 희망도 보이지 않을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커지면 이제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부모3)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듣고 '아이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지금 좀 더 많이 심각한 상황에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부모3)
아이들이 크면, 그런 인식이 있던 아이들이 크면 언젠가는 또 뭔가 일을 하고... 지지할 것 같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 내가 가라 이렇게는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부모2)
글을 써서 어디에 내는 거라면 하라고 할 것 같아. 그런데 어디 나가 가지고 어른들과 뭔가를 한다는 것은...(고민할 것 같아요). (부모3)
00이 누나가 세계 환경 지킴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00이 누나도 설문을 같이 했어요. 00이 누나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나도 부모로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는 하겠지만 내가 밀어 넣으면서 가서 거기서 (기후행동 참여) 해 이거는(안 할 것 같아요). (부모1)

5) 개인보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요. (기후위기 대응 실천)

어른들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것들보다는 기업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된 것들을 규제하고 재활용 정책, 탄소 배출 정책 개발 및 동참해야 하며 특히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하여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네이버 뉴스 보니까 과학자들이 젯소 화장실 훈련을 했다고...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부모 3)

개인의 노력으로는 생활에서 재활용이나 쓰레기 배출,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일상에서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제안하였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텀블러 사용. 주부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부모1)

생수를 사다 먹는데 플라스틱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정수기로 바꿔야 되나. 생수병 엄청 나와요. (부모2)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너무 음식 시켜 먹기 먹기가 무서워. (부모3)

3_아동과 부모가 인식한 기후위기와 기후행동 비교

아동과 부모의 기후위기 인식, 감정, 책임, 기후행동에 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동은 기후위기에 대해 문제인 건 알고 있지만 관심은 없고, 배우고 알고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부모의 경우는 예전과 기후가 달라진 것을 체감하고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부모 모두 아동의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레타 툰베리처럼 적극적인 기후행동으로 등교 거부와 같은 강력한 시위 행동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기도 하였다. 아동과 부모 모두 기후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주변에 기후행동을 하고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하는 소극적인 참여에 대해 고려해보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뷰에 참여한 아동은 국외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과 달리 기후위기 책임에 대해 성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기후위기 책임을 정부나 기업, 성인의 행동에 책임이라 국한하기보다는 인간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하였다. 여기서 모든 인간이라 함은 아동 자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아동 스스로도 통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을 기후위기의 부정적 영향의 당사자로 기성세대를 기후위기의 원인 제공자로 대립하는 시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성인과 아동의 연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생각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까지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이는 면접자들의 발달단계별로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제안이었지만, 아동 자신이 지켜야 하는 실천에는 실제 실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부모들은 자신이 실천해야 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들을 더 강조하였다.

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아동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지만,

기후행동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아동의 모습은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되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성인 세대와 연대하여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05. 결론 및 제언

1_기후위기 감수성 향상

국제적 트렌드로 떠오른 기후위기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후위기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들과 부모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관심은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지식수준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의지보다 기후변화 감수성과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과 부모 모두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대처방안에는 무지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기후 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후 감수성은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책임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동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켜야 하며, 이것이 바로 기후 감수성이다(오승근 외, 2021). 따라서 기후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스스로 기후를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의 기후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아동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과학적 상식의 이해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단편적 지식이 아닌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의 눈높이와 사회환경 분위기를 반영한 기후교육 프로그램은 강의 및 정보 전달 형식에서 벗어날수록 청소년이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오승근 외, 2021). 하지만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 교

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후 현상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탐색하는 기후교육 프로그램이 절반 이상이 '지식 분야(54.9%)'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확인하거나 기후변화를 위한 실천 중심 교육인 '태도 분야(9.8%)'는 아주 낮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태도 분야'에 속한 기후변화 감수성 영역은 기후 관련 프로그램 133건 중 단 1건에 불과하였다(신원섭 외 2020). 따라서 기후변화 감수성을 비롯한 대응 의지와 대응 실천이 포함된 태도 변화의 기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후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량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뿐 아니라 서울시의 자체 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발달단계상 아동교육은 참여자의 활동 중심과 체험 위주의 교육이 효과가 높다. 이러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환경교육센터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과 인근 공원의 활용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아동이 서울 비거주 아동에 비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와 그래타 튜베리를 알고 있는 아동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반면 부모의 경우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서울 거주 부모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서울시만의 독자적 특성과 교육 욕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_시민과 소통의 장 마련

기후 문제와 같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과학자, 시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하고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 과정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즉, 기후 문제라는 당면한 상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관심을 두고 대응하는 행위 주체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행위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Kim, 2012). 즉, 기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속의(deliberation)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Delina, 2020).

그러나 현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참여가 제외되어 있다.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결의'를 채택했고, 정부는 그린뉴딜 종합계

획에 이어 올해 ‘2021 탄소 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관련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후위기에 대한 참여에 대해 초점을 두었지만 이러한 아동의 참여는 어른의 참여와 별도로 다루어질 수 없다. 일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정부에서 아동의 참여는 더욱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은 기후위기 전문가가 아니지만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것도 시민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시민의회’와 같이 기후위기 문제에만 집중된 상시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정부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긴급한 조치들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와 같이 영국과 프랑스는 기후시민의회를 조직하여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의회를 통해 기후위기 의제가 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시민들에게까지도 기후위기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줄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끼리 장시간 학습하고 토론하여 직접 대안을 마련한다면 좀 더 생활 체감형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아동과 성인의 연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도 시민을 더는 캠페인 대상자로만 여기지 말고 계획 수립부터 대안 제시 단계까지 서울시(의회)와 시민이 쌍방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해야 한다. 국외 유럽 시민기후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상시적 시민참여 기후의회 조직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3_아동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

기후위기는 인간의 생활양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발달 중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 심각하다. 아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히 수동적이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가 아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권리 주체자’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세계 곳곳에서 그 누구보다 아동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내가 그레타 툰베리다”라고 외치는 ‘제2의 그레타 툰베리’들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했다. 그레타 툰베리에게 영감을 받은 10대들이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라며 기후변화 위기에 무감각한 정치권을 꾸짖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은 기후위기의 문제에 비교적 소극적이며 다른 나라의 아동들이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기후행동도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아동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아동들의 기후행동에도 무관심한 것일까? 본 연구에 따르면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을 알고 있는 아동은 26.3%로 나타났으며 세계 아동·청소년들의 기후행동에 대해서도 절반 이하(42.0%)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기후행동을 지지하는 경우(70.2%)와 그러한 기후행동에 참여할 의향(77.6%)도 높다고 볼 수 없었다. 비록 우리나라에도 청소년기후행동단체가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글로벌 연대를 통해 서울에서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이들의 시위는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에게조차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아동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동 스스로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앞서 지적한 낮은 기후 감수성과도 관계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들이 겪고 있는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당면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아동의회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혹은 미래와 연관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자주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아동을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참여 과정을 통해 능동적 시민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의 권리를 학습하고 나아가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성숙도가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기후위기 문제의 대응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성인들도 ‘기후위기’ 대응에서 아동과의 연대해야 하는 것을 당연시할 수 있을 것이다.

4_서울형 그레타 툰베리 활동 지원

서울시도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한 아동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상시적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참여는 중앙정부 단위에서보다는 비교적 지자체 단위로 실행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 참여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의 기후행동 지원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을 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아동·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기후위기 의회를 조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의 사례에서처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⁷⁾의 산하 특별 회의체처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에도 청소년의회가 있으나 실제로 아동·청소년의회가 스코틀랜드의 사례에서처럼 기후위기와 같은 특별한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건의하는 활동을 하는지는 조사된 바 없다. 만약 서울시 아동·청소년의회가 그 본질적 기능인 아동 당사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후위기’ 문제를 특별 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 회의체 운영에 있어서는 스코틀랜드의 사례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과정부터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퍼실리테이터 양성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후전문가가 모두 아동의 참여를 독려하며 아동의 시각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논의해 주는 역량을 가진 아동 권리옹호자 혹은 아동 참여 전문가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겸비한 퍼실리테이터의 양성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 내용에서 제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아동은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보다는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동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는 기후위기 특별 회의체 초기 운영에 있어서는 필수적 사항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퍼실리테이터로 양성되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전문적 회의체가 운영되면 그 안에서 아동 스스로가 기후위기의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사 혹은 연구도 지원되어야 한다. 아동이 제안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소수의 청소년의회 내부 활동가들에 의해서만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7) 서울시는 2018년 제1대 청소년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2021년 제6대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2항(청소년의 자치권)과 서울시 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청소년 참여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서 다양한 방식의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방식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더 많은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 조사와 같은 방식은 추천할 만하다. 스코틀랜드의 사례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은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더 많은 아동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러한 의견 제안 창구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 있는 아동 청소년 단체나 모임들이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아동의회 홈페이지는 의회의 활동 내용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관심 있는 아동이라면 의견을 쉽게 남길 수 있는 SNS도 운영 중이다. 또한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위기 관련 시위도 모두 SNS를 통한 정보 공유로 연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아동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통 창구의 개발과정에서도 의회 아동이 주체가 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참여는 유엔총회와 같은 국제회의에서 보여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과 자신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참여와 기후위기행동이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아동 의견이 실현될 수 있는 창구(회의체)로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의회의 특별 회의체 혹은 독립적 기구로 운영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서울시와 25개 구가 함께 실행 가능한 운영방안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숙 (2017). 아동참여권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분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1), 447-460.
- 박기령, 신동훈 (2020).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인식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신원섭·전예름·신동훈 (2020).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기후변화교육내용 분석」. 에너지기후 변화교육 10(2): 121-129.
- 오승근, 김미옥, 강선미, 조안나, 김선경, 이응택. (2021).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위한 청소년 기후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도시연구, 19, 269-308.
- 임연수, 이진균, 이기영 (2021). 유튜브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 방향 모색. 광고PR실학연구, 14(3), 155-184.
- 한겨레신문(2021.4.5.) “헌법 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뀌가는 시민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89613.htm>.
- David Boyd, “Safe Climate: A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theEnvironment”,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74/161 (2019).
- Delina, L. L. (2020). Climate mobilizations and democracy: The promise of scaling community energy transitions in a deliberative system.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Planning, 22(1), 30-42.
- Human Rights Committee (2018) General comment No. 36 (2018) on article 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the right to life, p. 62, available at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1_Global/CCPR_C_GC_36_8785_E.pdf.
- Kim, H. S. (2012). Climate change, science and community.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21(3), 268-285.
- Setzer J. & Byrnes R. (2020), p. 4,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0 snapshot.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and Centre for Climate Change Economics and Policy,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Thunberg, G. (2019, May 5). It's 2019. Can we all now please stop saying "climate change" and instead call it what it is: Climate breakdown, climate crisis, climate emergency, ecological breakdown, ecological crisis and ecological emergency? [Tweet]. Twitter. Retrieved from <https://twitter.com/GretaThunberg/status/1124723891123961856>.

UNICEF (2021). The Climate Crisis is a Child Rights Crisis, <https://www.unicef.org/media/105376/file/UNICEF-climate-crisis-child-rights-crisis.pdf>.

<https://www.childrensparliament.org.uk/>(스코틀랜드 아동의회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유엔인권기구 홈페이지).

<https://youth4climateaction.org/>(청소년기후행동 홈페이지, 한국).

<https://www.climateassembly.scot/>(스코틀랜드 기후의회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List.do?mi=1219&bbsId=1016>(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나할말있어요 온라인플랫폼).

<https://fridaysforfuture.org/>(금요일학교파업 홈페이지).

작은연구 좋은서울 21-01

기후위기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발행인 유기영

발행일 2021년 11월 9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